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 HELLO NEXEN

R

U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 CONTENTS

2017 Vol. 68



## 표지 이야기

2017년 <헬로우 넥센>의 콘셉트는 'T.I.R.E.를 말하다'입니다. 여름호의 주제는 'RUN'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넥센인의 열정을 의미하지요, 거친 환경에서도 도전을 즐길 줄 아는 넥센인을 이미지화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 NEXEN TODAY

### 04 포커스 온 넥센

넥센타이어 75주년 창립기념일

### 06 줌 인 넥센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08 줌 인 넥센 2

황산공원 환경 정화 활동

### 10 줌 인 넥센 3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체결

### 12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 18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분당판교1호점

### 22 넥센 갤러리

나의 기록 나의 작은 도전기

### 26 피플 & 피플

칭찬합니다



## NEXEN TOGETHER

### 32 스페셜 테마 1

꿈꾸는 자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 36 스페셜 테마 2

행복한 조직 문화를 이끌어간다

### 42 스페셜 테마 3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6가지 기술

### 44 인터뷰

화가 김물길

### 48 위 아 더 넥센

연구소 설계해석팀

### 52 넥센인 특

매일이 도전인 우리, 넥센인에게 '도전'이란?

### 54 넥센인 생활백서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

### 58 패밀리 데이

구름 위 새로운 세상에 서다

### 62 대:담하다

(창녕) 낚시 동호회 4인

### 66 넥센 어라운드

고척 스카이드 100배 즐기기



## NEXEN TOMORROW

### 72 스포츠 마케팅

국내서 가장 특별한 모터스포츠

### 76 넥센 트래블

베트남을 여행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15

### 82 건강 가이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건강 관리법

### 86 집밥 넥센생

주스 한잔으로 충전하는 여름 에너지

### 90 달콤한 도전

크고, 맵고, 뜨겁다 이유 있는 도전

### 94 넥센 살롱

될 만한 걸 해서 성공한 영화에 대한  
품의서 BEST 3

###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7년 여름호 통권 68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7년 7월 3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이시라, 한병희, 최주용, 문경아 사진 (주)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에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우인쇄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YANGSAN

### 양산공장



넥센타이어 75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양산·창녕·서울 각 사업장에서 기념식을 치렀다. 모범사원 및 장기 근속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 CHANGNYEONG

### 창녕공장



## SEOUL

### 서울사무소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일자리 적극 마련 약속

출처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사진 이맹호



넥센타이어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넥센 강남타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와 박승규 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전방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장 설립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넥센타이어는 올해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up>1)</sup>





## 특별한 창립 75주년 파티 황산공원 환경 정화 활동

글 송준우(기업문화팀) 사진 권지영(기업문화팀)



넥센타이어는 75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CSR(사회공헌활동) 부분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기획한 것. 양산의 대표 기업인 넥센타이어는 양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이 임직원뿐만 아니라 양산 지역주민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에 양산 시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황산공원은 양산의 랜드마크로 현재 집중 육성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넥센타이어 임직원은 공원 내 일부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영운영본부 이현중 본부장, 넥센타이어 노동조합 박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양산공장 전 부서별 인원 90명이 참석해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다.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를 비롯해 보다 쾌적한 공원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3시간 넘게 정화 활동이 이어졌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특별한 생일을 응원해주는 듯한 맑은 날씨와 신선한 바람은 임직원들의 손짓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며, 양산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 창녕공장도 함께하는 아름답고 뜻깊은 회사의 생일을 맞이하길 바란다. <sup>19</sup>



#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체결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 적극 추진

글 이강우(노사협력파트) 사진 손호남



넥센타이어는 6월 19일 노·사 대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2층 교육실에서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강호찬 대표이사, 박주홍 노조위원장, 유재식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비롯한 여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노·사·정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일과 가정이 양립한 일가양득 일터 만들기 적극 동참 △안전보건 경영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 적극 동참 △지역사회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주홍 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은 “26년 무분규 사업장이자 모범적인 노사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과 사업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논의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재식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넥센타이어 노사가 일과 가정이 양립한 일가양득의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과 지침 준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넥센타이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넥센타이어는 노·사·정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美 'JD Power'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 2년 연속 4위

넥센타이어는 미국 JD Power가 실시한 '2017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5년형 및 2016년형 차량 소유자 2만 9622명을 대상으로 신차용 타이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유틸리티, 럭셔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타이어의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JD Power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제품 성능을 높여감은 물론,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인 포르쉐를 비롯해 폭스바겐, 르노, FCA그룹(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OE 공급을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 독일 '레드닷',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 등 잇따른 수상

넥센타이어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디자인 상으로, '엔페라 RU1' 제품이 본상을 받은 바 있다.

미국 파마니 그룹(Farmani Group)에서 주관하는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는 유러피언 스타일 제품을 선정하는 디자인 상이다. 앞서 넥센타이어의 '엔페라 RU1', '원가드 스노우지 WH2' 두 제품이 운송수단, 자동차 액세서리, 제조업 부문에 출품하여, 각 부문에서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을 수상했다.

'엔페라 RU1'은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본상을 받으며 유럽·미국·아시아 등 전 세계 6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 제품은 현재 포르쉐 카이엔에 공급 중이며, 탁월한 승차감과 뛰어난 정숙성을 자랑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용 프리미엄 타이어다. '원가드 스노우지 WH2'는 눈길과 얼음 노면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과 우수한 그립력을 제공하는 겨울용 타이어다.

넥센타이어 천경우 연구개발본부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이은 수상은 넥센의 글로벌 디자인 경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회사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4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7월 3일 독일 에센의 알토 시어터에서 열렸다. 수상작은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된다.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 실시

넥센타이어가 최근 리뉴얼한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기간내에 넥센타이어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주요 기능인 내 차에 맞는 타이어 찾기, 가까운 판매점 찾기, 제품 비교하기, 월 렌탈료 계산하기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체험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벤트였다.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신 스마트 워치, 백화점 상품권, 커피 기프트콘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에 중점을 두고 개편한 홈페이지를 활용해 온라인에서의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고속도로 타이어 무상 점검 캠페인 실시

넥센타이어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무상 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통영 방향),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순천 방향), 5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순천 방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타이어 관리 전문 인력과 2.5t의 모바일 점검 차량이 투입돼 타



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고, 워셔액 보충, 차량 실내 소독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장착된 타이어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모든 타이어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3종 세트를 증정했다. 넥센타이어는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타이어 무상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2라운드서 ‘엔페라 SUR4G’ 선보여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2라운드가 5월 28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됐다.

이번 2라운드에서는 신제품 레이싱용 타이어 ‘엔페라 SUR4G’의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대회 당일 선수단을 대상으로 신제품 프레젠테이션과 론칭 축하 세리머니를 함께 선보였다. 레이싱용 초고성능 타이어 ‘엔페라 SUR4G’의 G는 Grip(그립)의 약자다. 하이 그립 컴파운드 적용으로 기존 엔페라 SUR4보다 그립력(접지력)

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선수들의 랩타임 단축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는 7개 동호회 차량 200여 대를 초청하여,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서킷 체험 주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매 라운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린이 에어바운스, 세발자전거 레이스, 피트스톱 챌린지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경기 당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SBS 스포츠 채널에서도 녹화 중계가 이뤄졌다. 한편 2017년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된다.



## 타이어 렌탈 고객 대상, 고척 스카이드롬 초청 이벤트 시행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6월 16일 고척 스카이드롬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초청 이벤트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행사 기간에 렌탈 장착 후기를 남긴 고객 전원을 초청했으며, 상담 신청을 남긴 고객 중 100명을 선정해 1인 2매씩 총 200명을 초청했다. 초청 고객 중 한 명을 선정해 경기 시구 기회를 제공했으며, 초청 고객 전원에게는 야구 모자와 응원용 붐을 증정하기도 했다. 넥스트레벨은 사용 기간 중 마모나 파손이 발생하면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4개 렌탈 시 2개, 2개 렌탈 시 1개를 추가로 지원하는 명품 보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공기압 점검·보충, 향균 연막탈취, 워셔액 점검·보충 등 차량 10대 항목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넥센타이어 한국지역담당 박강철 전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업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넥스트레벨’ 20만개 돌파 기념 홈쇼핑 특별생방송 진행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의 20만개 판매를 기념해 GS홈쇼핑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6월 5일 밤 한 시간 동안 진행한 GS홈쇼핑 방송에서는 상담예약을 남기는 고객에게 휴가비 총 3,000만원 (500만원, 6명) 제공 등 경품 추첨 이벤트 기회가 있었다. 상담완료 고객에게는 3,000원 모바일 주유권이 지급됐다. 또한 계약고객 중 롯데제휴카드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2만원 모바일 SK주유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롯데 기프트카드 총 150만원의 경품을 증정했다.

넥스트레벨은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실시한 타이어 렌탈 서비스다. 사용 기간 중 마모나 파손 등 고객이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2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고객이 원하면 6개월마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공기압 점검·보충, 향균 연막탈취, 워셔액 점검·보충 등 차량 10대 항목 안전 점검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렌탈 가입 고객은 방문서비스와 별도로 전국 렌탈 전문점 어디에서든 차량 10대 항목 점검 서비스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강철 넥센타이어 한국지역담당 전무는 “넥스트레벨은 고객의 구매 선택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서비스가 결합된 고객 지향의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고객이 렌탈서비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 국내 연주회 및 체코 콩쿠르 후원을 통한 문화 마케팅 펼쳐

넥센타이어가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외 연주회 및 콩쿠르에 대한 공식 후원과 국내 연주회 초청 이벤트를 진행했다. 국내는 6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67회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를 후원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음악의 역사를 빛낸 두 거장 모차르트와 브루크너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음악사상 가장 숭고하고 비극적인 진혼곡으로 여겨지는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브루크너의 가장 잘 알려진 교회음악 ‘테 데움’을 선보였다.

넥센타이어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을 통해 이번 정기연주회 후원 소식을 전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연주회 초청 이벤트도 진행했으며, 당첨자는 6일 발표했다.

또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 안토닌 드보르자크 작곡 콩쿠르(이하 IADCC)’도 후원한다. IADCC는 체코 프라하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위업을 기리며 전 세계 젊고 실력 있는 작곡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회로, 경연을 통해 발굴된 작곡가에게 작곡 위촉, 녹음, 연주회 개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IADCC에서 넥센타이어 이름으로 특별 후원상을 시상하며, 경연 리플릿 광고 및 홍보물 등에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진정성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 타이어테크 분당판교1호점



지금껏 봤던 평범한 타이어테크가 아니다. 마치 태권V 기지에 와 있는 듯, 넓은 도로변에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로 만들어진 오토 로봇 '네크'가 우뚝 서 있다. 지역 명소로 고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분당판교1호점을 찾았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하맹수 점장:** 안녕하세요. 하맹수 분당판교1호점 점장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저희 지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1855-0100) 번호에 맞춰 저희 지점 전화번호도 1855-4343(넷셋-넥센)으로 고객이 기억하기 쉽게 했지요.

**김주하 과장:** 고객이 방문해 기분 좋게 서비스 받고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매장을 깨끗이 정돈하고, 고객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위종욱 매니저:**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해서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편이죠. '네크' 덕분에 방문 고객이 인증사진을 남겨 SNS에서도 화제가 됐답니다.

**신영섭 과장:** 작업 중에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고객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는지,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 데이터 분석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저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거죠.



하맹수  
점장



김주하  
과장



신영섭  
과장



위종욱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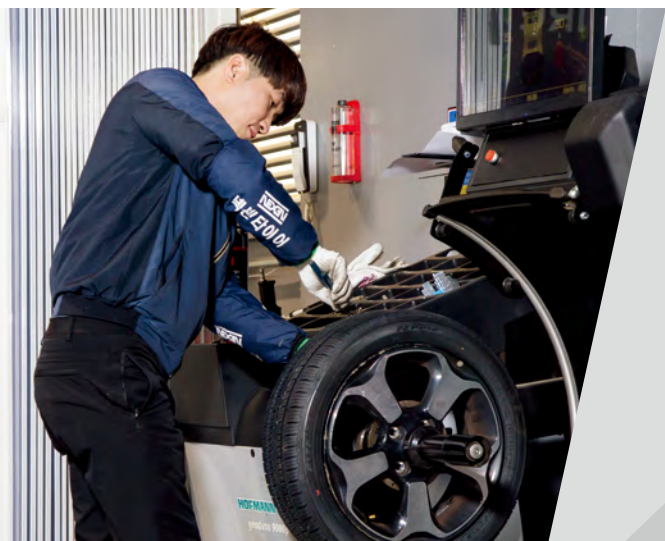




**하맹수 점장 :** 효율성과 차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급화된 정비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작업자도 빠르고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 교체 작업 시 휠에 나는 기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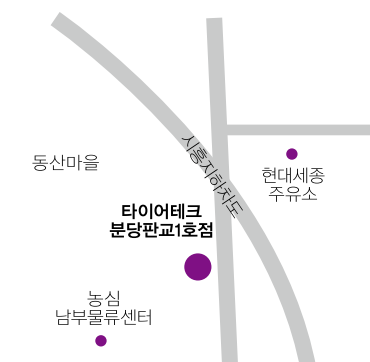
**김주하 과장 :** 저희 지점만의 빠질 수 없는 질소 주입 무상 서비스! 차량에 맞게 질소를 주입하면 공기압 감소가 덜하고 사고 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수명이 길어져 향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요.

**신영섭 과장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전 직원 모두 사고 방지를 위해 장비로 먼저 작업한 뒤, 토크 렌치를 써서 재조임 작업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작업이지만 꼼꼼한 손길에 많은 고객이 만족을 느끼며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종욱 매니저 :** 비·눈이 오는 날엔 고객들에게 타이어 관리법이나 자동차 관련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은 편하게 와서 차 한잔하며 간단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하맹수 점장 :** 타이어는 눈에 보이는 부품 중에서도 특히 피로도가 높은 부품이에요. 진정성 있게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지죠.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넥센타이어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01  
문의 1855-4343



# 나의 기록 나의 작은 도전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운동을 시작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  
이 사소한 일상도 모두 도전입니다. 우리는 항상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넥센인들의 도전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정리 김지혜



## 특성연구팀 김정훈

제가 속해 있는 바다낚시 단체에서 회장배 대회 때 우승한 사진입니다. 낚시 좋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만한 김문수 프로님이 속해 있는 단체지요. 낚시 실력이 출  
중하신 분들 가운데 우승한 거라 저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올해에도 우승을  
목표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 ▶ OE개발3팀 최규남 팀장

작년 10월 KNN에서 주최한 가족사랑 마라톤 대회에 생애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코스를 달리다 포기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일단 늦은 나이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욕심을 버리고 완주만 목표로 달렸는데, 5km쯤 달리다 보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7km쯤 가니 약간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7분대에 완주를 하고 걸어가는 데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머리가 빙빙 돌았지만 인생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늦깎이라도 도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할까? 매사에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듯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매사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 (창녕) 관리팀 박영하 과장

처음으로 바다낚시에 도전한 날. 낚싯대 던지기가 무섭게 낚아 올린 큰 노래미 한 마리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 낚시에 취미를 붙여 자주 다니지만, 아직 이 정도 큰 물고기는 잡지 못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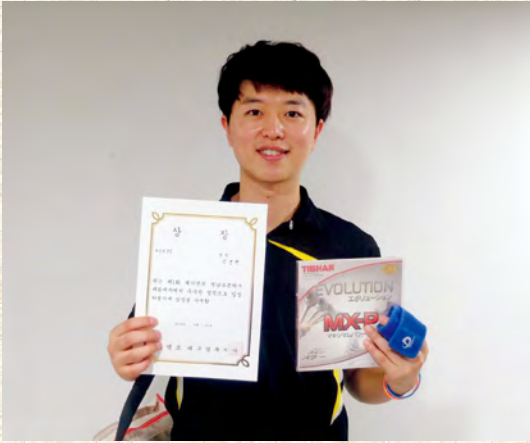


## 자금팀 최경은

주말에 일어나면 상 차리는 게 너무나 귀찮고 뭐 해 먹을 게 없을까 하다 식빵 고티머리 남은 걸 발견! '에그마요토스트'에 도전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어 먹기 좋아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맛이예요! 강력 추천합니다!







compound개발2팀 박정현 주임연구원

취미로 탁구를 하고 있는데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성적이 향상될 때마다 느끼는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창녕) 지원팀 지시연 대리

부모님을 위한 저의 첫 요리 어때요? 어버이날을 맞아 한 번쯤 부모님께 정성 가득 들어간 요리를 대접하고픈 마음에 도전했거든요. 부대찌개, 떡만둣국, 감자볶음, 브로콜리무침! 생각보다 맛도 좋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창녕공장 식당에서 열린 이벤트에도 참가했어요. 레몬청·자몽청 만들기였는데, 처음 만들어봐서 허둥했지만 결과물은 그럴싸하죠? 달고 맛있네요.



▲ (양산) 생산기술팀 김철민 대리

물속에서 맥주병이던 제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수영하는 수영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운동과 담쌓고 살던 제가 감히 철인 3종에 도전하다니….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네요.



0E영업2팀 조희주 과장

‘극복하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들면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면 변한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성과혁신팀 황익진 팀장

1997년 해외 군무를 마치고 다시 찾은 고향 음식이 반가워 지나친 폭식을 하다 보니 몸은 비대해지고, 급기야 고지혈증 판정까지 받았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상의도 없이 수영 새벽반 초급 강습을 끊었는데 강습료가 아까워서 새벽 수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지금도 출근 전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을 하면 심폐 지구력이 좋아지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근육이 생기고,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어 정신도 맑아져요. 너무 어려워 말고 수영에 도전해보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 칭찬합시다

회사에서 특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면, 동료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닐까? 상대가 상사든 부하직원이든 '같은 목표를 향해 동행하는 우리'라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들 때면 일에 대한 열정까지 솟아난다. 넥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려가는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보자.

정리 조병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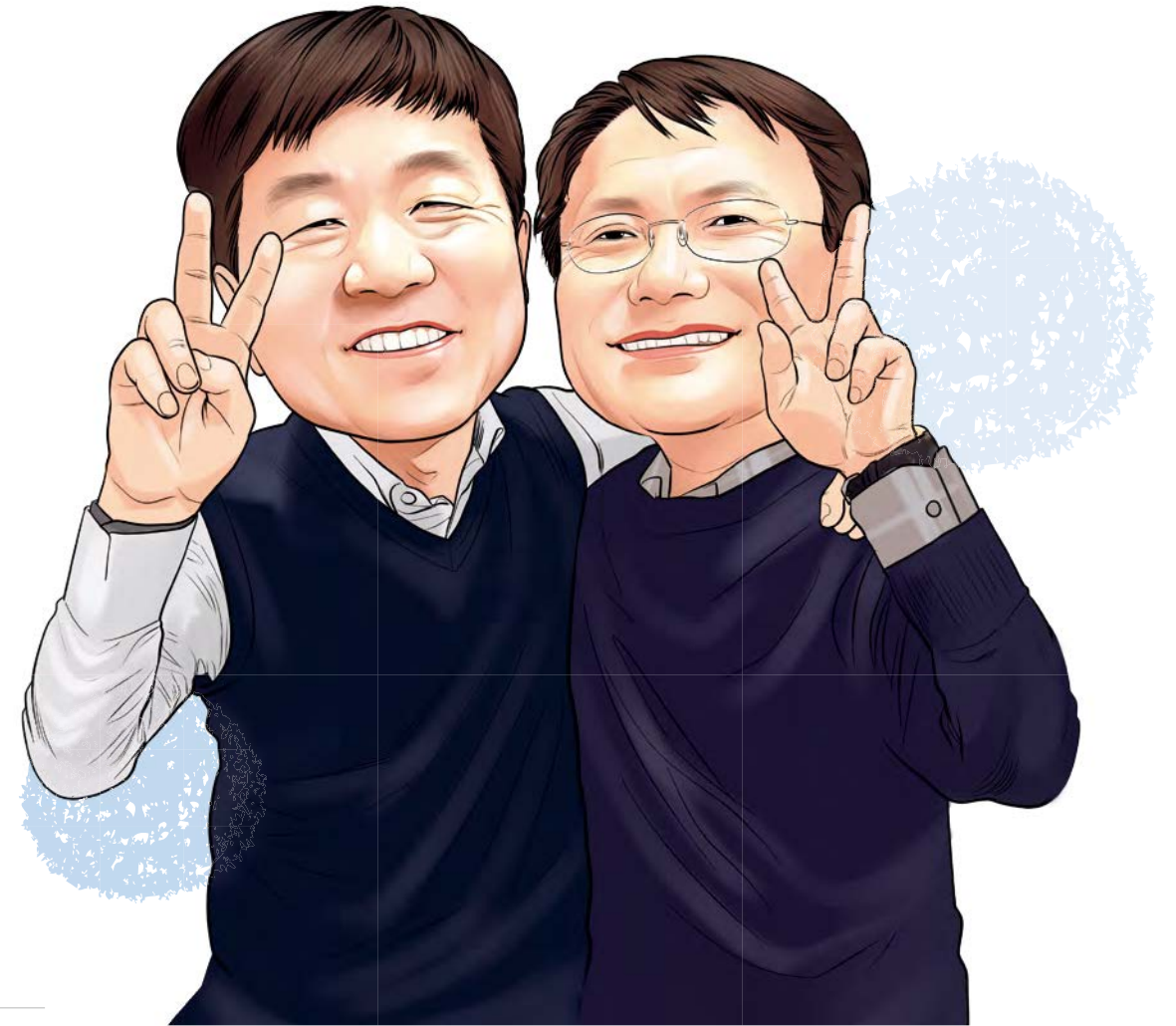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 RE개발3팀

#### 정재훈 주임 연구원에게

정재훈 대리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우리 부서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한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 후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함께 일하게 되었지요. 처음 봤을 때 느낀 강하고 차가운 이미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유머와 재치가 있는 동료여서 그와 함께하는 일과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 대리의 입담은 일에 지쳐 피곤한 동료들에게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어주었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멋지고 유쾌한 내 동료 정재훈. 부서를 옮긴 뒤로 자주 보지 못해 아쉽지만 그의 유쾌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즐겁게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양산) 생산기술팀 **김철민** 대리 보냄



화합과 소통의 아이콘을 소개합니다.

### 박병일 상무님, 오석규 이사님께

성능평가담당 박병일 상무님과 (CP)관리책임 오석규 이사님의 귀여운 모습을 <헬로우 넥센>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날은 창녕지원부문과 성능평가부문의 화합·소통을 위한 모임이 열린 날이자 박병일 상무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케이크도 나눠 먹었지요.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순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은 매사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부하직원들을 챙기시지요. 오석규 이사님 또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편견 없는 눈과 열린 귀로 직원을 대하는 두 분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차평가팀 **김봉수** 팀장 드림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두려움보다 더 큰 설렘과 용기가  
한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 걸음에 넥센타이어가 함께합니다.





# 도전

올해 넥센타이어에는 사내 문화 혁신 등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고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해내겠다’는 도전 정신과 목표 의식 아닐까요.  
잠시 방향을 잃더라도 동료들 믿고 소통하며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덕분에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남은 하반기에도 넥센타이어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며,

넥센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도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 꿈꾸는 자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꿈꾸는 자의 심장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주저하거나 꾸물거리는 데는 맞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이 ‘벽’이라 부르는 것을 만나면 이들은 도약의 발판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일에 부딪칠수록 가슴이 뛰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 때론 실수하고 또 실패한다. 갖가지 불운이 조롱하듯 덮칠 수도 있다. 그럴 때 방법은 하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다시 뛰어오른다. 여기 불굴의 도전 정신, 놀라운 재생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인 상상력의 주인공들이 있다.

글 이명석(칼럼니스트)



## 불가능을 지워나가는 아이언맨

###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겠어요.” “소방관이 로봇을 조종해 불길 속의 생명을 구하게 할래요.” 초등학생들의 ‘미래의 꿈’ 숙제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런데 로봇 연구소 로멜라의 소장인 데니스 홍이 이미 만들어버렸다. “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가능’을 전제로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다.

데니스 홍은 일곱 살 때 SF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로봇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세상에 없던 기계를 만드는 일에 수천 번의 실패는 당연했다. 그는 자신과 인류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꿈을 만들어갔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사람 대신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토르’를 개발한 것도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옮기자, 옛 연구실의 멘토는 그가 토르에 접근하지 못하게 연구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타고난 낙천주의와 넘치는 에너지는 그가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그는 마술사, 놀이기구 설계자, 교육 재단 운영자로 활약하면서도 <마스터 셰프 USA>에 나갈 정도로 요리 실력자이기도 하다. 그는 로봇의 마음으로 요리를 디자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위험하지 않은 일은 재미도 수익도 없다

### 모험의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은 항상 무언가를 저지른다. 스피드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고, 무착륙으로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열기구로 대서양을 횡단할 때는 조종사가 도망간 뒤 혼자 기구를 붙잡고 버티기도 했다. 그는 위험이 없는 일은 절대 손대지 않는 타고난 모험가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10대 시절 학업에 재미를 못 붙이자 잡지를 만들었다. 그러다 음반 사업으로 눈길을 돌려 마이클 올드필드, 보이 조지 등을 발굴해 버진 레코드를 키웠다. 그의 사업은 항공사, 콜라, 콘돔, 비디오 게임 등 종잡을 수 없는 영역으로 번져갔다. 그때마다 즉흥적인 듯하지만 냉철한 감각이 함께했다. 카리브 해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하자 바로 전세기를 빌려 함께 탈 고객들을 모집했다. 이어 중고 보잉 747을 사서 버진 항공사를 시작했고, 여성 스튜어디스처럼 화장을 하고 기내에서 음료를 돌렸다. 음료 사업에 도전하면서 탱크를 타고 코카콜라 광고판을 향해 포를 쏘기도 했다. 독특한 기행과 냉철한 사업을 오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있다.





방송이 나를 안 부르면 내가 만든다

걸크러시 개그우먼 김숙



대한민국 TV 예능은 40대 남성들의 놀이터다. 유재석, 김구라, 신동엽, 강호동 등이 지배해온 역사가 10년을 넘겼다. 20대 여성은 들리리라도 서지만 송은이, 김숙 같은 베테랑 여성 예능인들은 출연할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차라리 장사라도 하는 게 낫겠어.” 여기저기서 푸념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숙과 송은이의 판단은 달랐다. “방송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방송을 만들자.” 그들은 직접 장비를 구입해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국의 간섭이 없는 터라 훨씬 자유로운 이야기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그러자 거꾸로 TV와 라디오에서 구애의 손길을 뻗어왔다.

특히 김숙은 <최고의 사랑>에서 윤정수와 쇼윈도 부부로 나와, 성 역할을 뒤바꾼 캐릭터로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남자가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야지!” “어딜 감히! 남자가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녀는 쑥크러시라는 별명을 얻고 <언니들의 슬램덩크> <비디오스타>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간다는 김숙의 당찬 기운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매혹시키고 있다.

불운이 조롱할 때마다 더욱 뛰어난 음악으로 양값을했다

뮤지션 에릭 클랩튼



블루스는 불행과 좌절을 어루만지는 음악이다. 오랜 노예 생활을 거치며 슬픔을 체화시킨 미국 흑인들의 문화다. 그런데 만약 딱 한 명의 백인에게 그 음악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에릭 클랩튼의 몫이리라. 그의 삶 자체가 진짜 블루스이기 때문이다. 20대부터 그는 기타 연주자로 재능을 뽐냈다. 야드버즈, 크림 등의 그룹에서 인기를 얻었고, 1970년 걸작 앨범 <레일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악마의 질투가 시작되었나 보다. 이상하게 반응은 신통찮았고, 앨범 제작을 도와준 친구 듀언 올맨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은둔하며 약물 중독에 빠졌다. 그러다 일어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원더풀 투나잇’ 등의 인기곡들을 토해냈다. 그때 다시 악마의 공세가 시작된다. 그는 아내와 불화로 이혼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친구들의 연이은 죽음을 보았다. 급기야 네 살짜리 아들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이겨냈고, 아들을 그리는 곡 ‘티어스 인 헤븐’으로 다시 일어섰다. 지금은 완전히 부활해 ‘노년의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

재투성이 책 도둑에서 테크 신데렐라로

패션 CEO 소피아 아모루소



“내가 찾은 일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거친 구차한 직업들 덕분이죠. 처음부터 꿈의 직업에 안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패션 기업 내스티 갈(Nasty Gal) 창업자 소피아 아모루소는 말한다. 수백만이 팔로잉하고 있는 그녀의 SNS 속 화려한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부모가 실직한 열 살 때부터 정말 구차한 직업들을 이어왔다. 신문 배달과 샌드위치 판매원은 평범한 축이다. 심지어는 훔친 책을 아마존 중고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그러다 스물두 살에 이베이로 빈티지 옷을 팔기 시작했다. 스타일링부터 사진 촬영, 웹페이지 편집, 배송까지 1인 5역을 맡았고, 미국 10대 소녀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이제 <뉴욕 타임스>는 그녀를 ‘테크 신데렐라’라고 부른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CEO 1위’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런 그녀가 빠뜨리지 않는 일은 자신의 SNS에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를 공유해 사회 초년생들이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 쓴다.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낸 신발

탐스 창업주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무작정 여행을 떠나면 무엇이든 발견하게 될 거야. 서구 세계는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좇는 청년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직업은 구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영어 강사로 연명하며 술과 유흥으로 젊은 날을 탕진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예외는 있다. 탐스 창업주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다.

스물아홉 살에 아르헨티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떠났던 그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 하나는 ‘해결책’이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캔버스 천으로 쉽게 만들어 신는 ‘알파르가타’라는 신발이었다. 보통은 그 정도에서 끝난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문제’도 찾았다. 도시 빈민가나 오지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다. 그는 이 둘을 연결했다.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면 어떨까?’ 사회운동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독특한 시스템은 세계의 관심을 모았고, 탐스는 착한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 넥센! 행복한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넥센인들은 오늘도 변화를 꿈꾼다. 이를 증명하듯 넥센타이어 곳곳에서 도전과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합리적인 조직 문화와 효율적인 근무 환경은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정리 조병례



## PART.01

### 효율적인 문화 개선의 싹을 틔우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하루 업무 중 회의 및 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회의나 보고에 대해, 직장인들은 부담이나 걱정을 먼저 느낀다는 점이다.  
글 김종왕, 이덕명(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에 변화를 꾀하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 발전에 도전하고 있다. 경영전략본부 HR담당 산하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혁신팀은 최근 지루한 회의나 비효율적인 보고 문화를 개선하고자 ‘회의·보고 문화 개선안’을 시행하고 조직 내 원만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강호찬 대표이사는 넥센타이어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의 중요성과 함께 회의·보고 문화에 대한 개선 의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 임직원 여러분께

우리는 2025년 Global 1st Tier Company라는 담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추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GLC(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였고,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1단계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임직원 보상 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KPI에 입각한 업적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하여 ‘회의 문화와 보고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장시간에 걸친 회의, 결론 없는 회의 등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핵심이 누락된 보고, 소모적인 자료 작성 등 회의 및 보고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 Loss를 줄이고 ‘가치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과 표준화를 통해 업무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모습이 향후 넥센타이어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모습이 향후 넥센타이어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넥센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문화혁신팀

그동안 회의·보고에 대한 원칙 부재로 여러 이슈가 존재해왔으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회의 시간 초과, 형식적인 회의, 결론 없는 회의, 그리고 수십 장의 핵심 없는 보고서, 소모적인 자료 작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번 회의·보고 문화 개선안 시행을 통해 회의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업무 효율성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제고하는 운영안도 마련했다.

‘ACE한 회의 문화 만들기’, ‘OPR 보고 문화’ 전파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 사업장에 회의 문화 포스터 배포 및 부착을 통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확대시키고, 회의 종료 Timer 설치,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회의 안내, 회의록, OPR 보고서 양식 일원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사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의·보고 문화 개선에 대한 전 임직원의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조직 문화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

‘회의·보고 문화의 개선’이 싹을 틔운 넥센타이어는 꾸준한 ‘노력’과 ‘개선’이라는 양분을 먹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혁신팀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 바이러스가 전사적으로 퍼져 ‘웃음이 많고 행복한 우리의 일터, 넥센!’이 실현되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문서중앙화로 업무 효율 UP!

넥센타이어가 사내에서 필요한 지식 콘텐츠 활용에 용이한 시스템 ‘넥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넥스’는 2018년까지 국내 전사를 포함해 해외 사업장에도 도입돼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글 김지은(CT 운영팀)

넥센타이어가 전사 지식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지식 관리 시스템 넥스(KNEX, Knowledge NEXEN Next Centry)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다임사의 ‘Destiny ECM:V’에 넥센타이어 사내 공모를 거쳐 ‘넥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연구 자료, 업무 자료뿐 아니라 넥센타이어의 모든 정보성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넥센타이어가 사용 중인 그룹웨어의 결재 문서까지 포괄하고 통합 검색 엔진을 연동, 데이터 통합 관리와 함께 지식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estiny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은 업무 산출물만 관리하던 여타의 ECM과 달리, 협업 이력까지 제공해 저장된 콘텐츠 활용이 보다 효과적이다. 단순한 콘텐츠의 분류·관리를 넘어 협업 이력 등 보다 포괄적인 지식 관리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ECM 도입 전에는 파일서버나 로컬 PC에 문서를 저장하고 활용해 최종본이 아닌 사본이나 유사본 유통으로 직원 간에 혼란이 발생하고, 필요한 문서를 적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인의 과실이나 외부의 악의적 공격, 최근 화두가 된 바 있는 랜섬웨어에 의해 중요 문서들이 유실되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협업 강화·지식 관리 활용

넥센타이어는 사용자 PC 및 저장 매체에 보관 중인 조직의 중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자료의 유실·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R&D 조직 글로벌화에 따른 연구소 부문 간 문서 협업 강화, 그리고 해외·원거리 사업장과의 효과적인 문서 공유를 위해 ECM을 도입했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글로벌 업무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넥스의 특징은 콘텐츠 단순 관리를 넘어 협업과 지식 관리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요소를 현업 요구에 맞춰 구성함으로써 업무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검색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리자 편의성만 높이는 데이터 관리가 아닌, 현업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해 넥센타이어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는 시스템이 됐다. 또한 기존 첨부파일의 인덱스만 검색하는 기능을 넘어, 파일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 검색, 외부 논문 사이트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찾은 콘텐츠를 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했으며, 그룹웨어의 결재 문서, 업무 공용 문서 등까지 포괄함으로써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를 빠르게 검색·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넥센타이어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노하우와 지식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공유를 가능케 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업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넥스의 도입으로 넥센타이어는 업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뿐 아니라 검색엔진을 이용한 활용도 증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서의 생성부터 조회, 유통, 폐기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넥센타이어 업무 환경 최적화 문서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개인이 관리하던 업무 결과물을 조직의 자산으로 이해하고 활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에, 이제 문서는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회사 소유라는 인식이 임직원 사이에 자리 잡은 듯하다. ICT 운영팀은 새롭게 도입된 지식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구성원들의 성과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R&D 전 부서, ICT센터 대상으로 2017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 전사와 해외로 단계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p>㉞</sup>



## 넥센타이어의 모든 문서, 한 곳에서 관리

- 체계적인 문서관리
- 문서공유
- 협업
- 철저한 보안관리
- 쉬운유통
- 편리한 문서검색





#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6가지 기술

똑같은 환경과 비슷한 스펙을 가졌어도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에 머무르고 마는 걸까? 운, 재능, 가정환경... 등이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일까? 훨씬 열악한 환경과 평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 하나가 바로 '도전'이다.

글 권선근(칼럼니스트)

에디슨은 9전 10기, 아니 그 이상의 실패를 견뎌낸 인물이다. 그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기에 도전이라는 것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좋은 대학과 금수저가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에, 성공을 위한 진짜 열쇠를 쥐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습관, 넘어서야 할 것에 귀를 기울여보자.

## 1. 자기 확신을 가져라

자신을 향한 신념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변화하려면 자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바꾸고자 하는 의지,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발전이 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거나 자기 계발 따위는 헛짓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변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 생각이 단 1%라도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되니 일찍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딱 자기 믿음만큼 바꿀 수 있다.

## 2. 매일 큰 소리로 동기부여 하라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원동력이 있어야 도전에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동기부여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짧다. 의지만으로는 사흘도 버티기 어렵다. 동기부여는 매일 해야 한다.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적어놓고 큰 소리로 아침마다 읽어보라. 다소 겉연쩍겠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 3. 환경을 바꾸면 습관이 변한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다. 일찍 자려고 해도 친구가 술 마시자 불려내면 흔들린다. 계속 올려대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의지보다 강력한 게 환경이고,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의지도 쉽게 무너진다. 생활 습관 개선에 방해되는 요소를 세세히 검토해보라. 나를 흔드는 산만한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도전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 4. 작심삼일에 도전하라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면 최소 2주는 버텨야 한다. 새롭게 적응해가며 2달은 버텨야 습관이 되지만, 그 전에 2주라는 마의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요행도 없다. 오직 자신의 의지와 사명감으로 버텨야 한다. 평소와 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부터가 도전의 시작이다. 남이 도와줄 수도 없고 다른 뾰족한 해법 같은 것도 없다. 어떤 변화든 최소 2주는 지속해야 적응한다. 의지로 버티는 기간을 넘어 습관이 되면 훨씬 쉬워지니 초기에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

## 5. 나에게 선물을 주라

도전의 열매를 따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자칫 중도에 지쳐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 보상이 중요하다. 매일 노력하는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어진다. 나를 단련하는 채찍을 휘둘렀다면 당근도 필요하다. 매일 목표를 달성했다면 자신의 노력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 정 할 게 없으면 주변에 자랑이라도 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좋다. 뭐가 됐든 변화하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 나에게 칭찬의 선물을 잊지 말자.

## 6. 하나도 빠트리지 마라

위의 모든 게 하나의 사이클로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도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밸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기를. 그럴수록 끊임없이 기록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반성하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매일 발전하는 자기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마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⑩





화가 김물길

## 행복 찾아 시작된 컬러풀 로드무비

삶의 형태에는 정답이 없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한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는 도전을 거듭하며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가 김물길 씨는 '아트로드'라 명명한 2년여의 세계 여행을 통해 도전함으로써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 조병래 사진 이맹호

### 인생의 전환점

'아트로드'란 여행지에서 얻은 영감으로 매일 그림을 그리는 김물길 씨만의 여행 프로젝트다. 스물네 살이던 2011년 그녀는 여행을 떠나며, 그림 재료는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규칙을 정했다. 종이나 색연필을 구하기 어려웠고 품질도 나빴지만 그림에는 그녀의 상상이 더해져 보는 이에게까지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서식한다는 푸른발부비새의 독특한 색감에 반해 탄생시킨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름처럼 청량한 파란색인 이 새의 발을 보고 물길 씨는 그 속에 담긴 푸른 갈라파고스의 하늘과 바다를 떠올렸다. 바다사자와 갈매기뿐 아니라 하얀 파도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하다.





쉬운 여정이 아니고 그림 재료가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물길 씨 자신을 위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3주간의 해외 봉사를 경험한 후 더 넓은 세상을 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평생 화가로 살고 싶은 그녀가 그림을 그리며 여행한다면 그 여정은 분명 삶의 방점이 될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구도 제 여행을 응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첫 발걸음을 떼기가 쉬웠다면 그만큼 포기도 쉬웠을지 모른다. 준비를 마련하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여행 그 이상으로 치열하게 일하면서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않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요즘은 세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인터넷뿐 아니라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 등 채널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반면 그녀에게는 롤모델이 있었던 것도, 자료가 풍부했던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떠나고 말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나라 밖으로 이끌었다. 아프리카 땅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물건을 도둑맞거나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완전히 에너지를 소진한 사건들도 그녀의 여정을

멈추지 못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패기로 시작한 킬리만자로 등반은 고산증으로 구토가 계속되고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만 돌아가자는 가이드의 권유에도 멈추지 않고 정상을 다녀온 후, ‘더 이상 못 할 게 없다’는 용기가 생겼다.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려도 그때에 비하면 괜찮잖아, 하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게 됐다.

### 캔버스를 채우는 상상

그녀의 그림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상상력과 의미를 담아 그녀만의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중이다. 입시를 위해, 점수를 위해 다른 사람 취향대로 그림을 그렸던 때도 있었고, 그것이 곧 자신의 그림체라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여행자가 그녀의 그림에 대해 “물길 씨는 보이는 대로만 그리나 봐요”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나는 많은 상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은 왜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이 좋은 자극이 되었죠.”

여행 중 8개월가량 아프리카에 머물며 본 아이들의 해진 옷이 마음에 걸렸다. 아이의 초상화를 그리며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상상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이 일은 자신의 재능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녀의 그림은 또 다른 변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김물길 씨는 귀국 후 KBS <강연 100℃>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곧 그림과 여행기를 담은 첫 책 <아트로드>를 출간했다. 이후 국내 여행을 떠났고, 두 번째 책 <아트로드, 한국을 담다>를 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물길 씨에게 각별한 에너지가 됐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강연해본 결과, 청중들의 표정, 끄덕이는 반응 하나하나가 화자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을 만큼 감격적이지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더 깊은 진심을 담아, 더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깨달음은 그녀의 내면까지 바꿨다. “일상 속에서 계속 의식하고 노력 중인 일을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의 도전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느낀 적이 많기 때문이지요. ‘내 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이유

<헬로우 넥센> 독자들에게 도전을 독려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스물네 살에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꼭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단 하나의 이유를 품고 저는 여행을 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뭔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정말 많죠. 해도 되는 이유보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남을 설득할 수 없어도 괜찮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는 저를 발견하고 발전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감동받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넥센인 여러분도 더 행복해지리라 믿어요.”<sup>10</sup>

▶ 망망대해\_경주연꽃밭



저도 모르는 저를  
발견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감동받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연구소 설계해석팀

#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넥센타이어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았다. 완성도 높은 타이어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소의 설계해석팀이다. 일도 잘하고 팀워크도 기막히게 좋은 이들이 있기에 더 나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산하게 됐다.

글 조병래 사진 이맹호

## ‘다크 템플러’가 여기 있다

“넥센타이어 직원 중에서도 설계해석팀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라도 사보에 소개하게 됐으니 앞으로 사내에서 보면 많이 격려해주세요.” 김성래 차장이 기다렸다는 듯 말하자 팀원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에 팀원들과 야외 활동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순위에서 밀린 적도 있다는 말에 취재팀의 마음이 잔해졌다. 드디어 만나게 된 설계해석팀의 이야기를 더욱 충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 우리 팀을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캐릭터 ‘다크 템플러’라고 소개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설계해석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성기득 팀장이 “타이어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죠. 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가장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인 셈.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컴퓨터가 명령만 받으면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설계해석팀은 신차용 타이어를 본격 개발하기 위해 2004년 탄생했다. 설계해석팀은 설계 자동화 등과 같이 설계 환경을 구축하는 파트(CAD)와 타이어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는 파트(구조해석)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시뮬레이션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성래 차장이 바로 팀의 시작이다. 지금은 총 14명이 소속돼 있다.





시뮬레이션은 타이어 특성에 따라 다른 가상 실험을 진행하는데, 김용수 과장이 눈길·진흙길 등 트랙션 위주의 시뮬레이션을 담당한다. 권현직 연구원은 타이어의 열과 유동 성질을 해석한다.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무 원재료를 섞고 기계로 뽑아낼 때 고무 재료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연구하는 일이다.

## 더 좋은 타이어를 위해

최광혁 대리는 설계 자동화 툴을 만든다. 개발자들이 원하는 툴을 개발하고 IT 분야 보조 업무도 동시에 진행한다. 박한석 대리는 타이어의 특성을 해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타이어 내구성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터질 때가 있죠. 열이 발생하거나 하중이 많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와 관련된 타이어의 내구성을 연구합니다.” 최재영 사원은 시뮬레이션 파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의 타이어 만드는 작업을 보조하는 일이다. 설계해석팀의 업무는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외 학회에 참가해 연구/개발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한다. 인터뷰가 진행된 다음 날에는 성기득 팀장과 박한석 대리가 춘계 자동차공학회에 참가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타이어가 뽀족한 것에 부딪혔을 때, 방지턱이나 인도 둔턱에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파손되는지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박한석 대리가 설명했다.



성기득 팀장



김성래 책임연구원



김용수 선임연구원



박한석 주임연구원



최광혁 주임연구원



권현직 연구원



최재영 사원

설계해석팀은 올해 초 개편을 통해 연구기획담당에 소속되며 커다란 미션이 주어졌다. 2019년으로 예정된 마곡지구 이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Paperless, Tireless다.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실체가 아닌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펼쳐져야 한다. 시뮬레이션 기술을 극대화한 가상 실험을 필두로, 종이를 완전히 없앤 회의, 보고 환경, 그리고 현장의 실험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게 만드는 원격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IT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다. “더 일하기 좋은 넥센타이어를 만들어야죠.” 팀원들이 입을 모았다. 최근 넥센타이어는 보고 문화와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간 팀의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어왔던 설계해석팀은 이번에도 유연성을 발휘해 보다 나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중이다. “다 잘해야 진짜 인재 아니겠습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김용수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연구기획담당이 회사 문화 개선의 선봉에 있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따라야 할뿐더러 술선수범해야 하는 의무도 있죠.” 성기득 팀장이 덧붙였다. 어떤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려는 설계해석팀의 노력이 돋보였다.

## 우리 팀만 한 곳 또 있나요

설계해석팀은 분위기가 남달랐다. 끊임없는 웃음소리와 농담, 친근함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연구/개발은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에요. 집중할 때는 더없이 일에만 몰두하죠. 대신 여유 있을 때는 충분히 쉬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도 더 잘되는 법이고요.” 김성래 차장이 미소를 띠며 설명했다. 이들에게 하반기에 도전하고 싶은 것에 대해 물었다. 운동으로 건강 챙기기와 다이어트, 운전면허 취득, 가족과의 시간 갖기, 좋은 연구 성과 내기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 속에서 모두의 마음을 관통한 것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이었다. 인터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설계해석팀의 끈끈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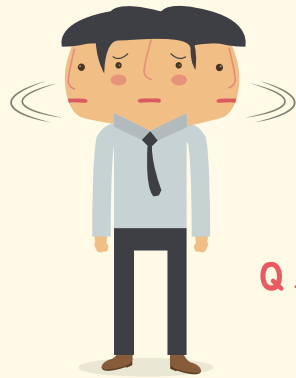


# 매일이 도전인 우리, 넥센인에게 ‘도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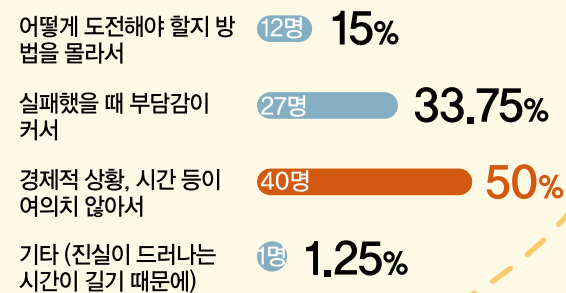
2017년 5월 17~20일 진행, 총 72명 참여

2017년도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넥센인은 올해 초 세운 목표를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나요? 목표에 대한 꾸준한 도전과 실행은 스스로의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원동력입니다. 또 다른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넥센인들에게 도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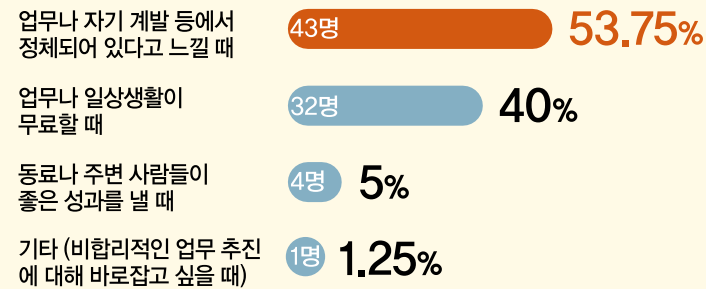
정리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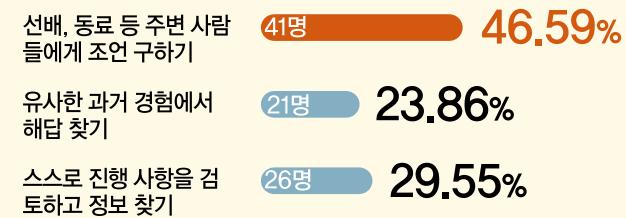
**Q 도전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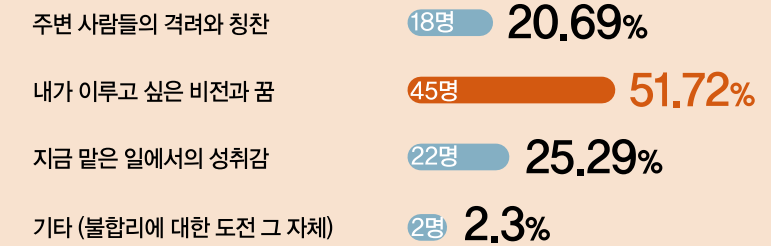
**Q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복수응답)**



**Q 도전 중 겪는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Q 나의 도전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Q ‘도전’에 관해 롤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나요?**

- ◆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일반인의 성공담을 보면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미오
- ◆ 힐러리 클린턴 | 같은 여자로서 야망과 꿈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 지시연
- ◆ 지금 스타트업에 몸을 던져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꿈에 다가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 천경우
- ◆ 토머스 에디슨 | “나는 수많은 결과를 얻었다. 효과 없는 실험 수천 가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에디슨이 제 롤모델입니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대표적 인물이죠. • 박정현
- ◆ 예전에 모셨던 직장 선배 중에 누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결국 새로운 조직 구성까지 성사시킨 분이 있는데, 그 도전적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 양승진



**Q 도전을 지속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 ◆ 주변 지인에게 알려 그 얘기를 자주 하며 도전을 계속 인지하도록 합니다. • 심도욱
- ◆ 작은 변화에서 성취감을 찾고 계속 새로운 목표를 세워 도전하려 노력합니다. • 정유성
- ◆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저를 위한 선물을 마련합니다. • 신세명
- ◆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또한 즐기기로 마음 먹으면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 김기현
- ◆ 도전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위에 자랑하다 보면 그 꿈에 닿을 수 있어요. • 김명신
- ◆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죠. 동기부여가 충분하다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이도연





#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고 돌진한다면 금세 지쳐버리고 만다. 목표로 한 것이 크든 작든,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 바뀐 당신의 일상은 힘을 얻게 해주는 도전 과제로 가득할 것이다.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튼금없이 물리학 이야기를 해보자. 천재 과학자였던 뉴턴은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 직선처럼 움직인다’고 했다.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다시 미래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게 되고, 보나마나 내일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아주 무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천재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한 방향이 아니다. 휘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을 잠시 돌아보자. 정체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꿈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업무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괜히 나서기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지만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가진 당신을 위해 3가지 도전 과제와 생각해볼 3가지를 정리해보았다.

## 3가지 도전 과제

### 첫 번째 도전 : 무사한 출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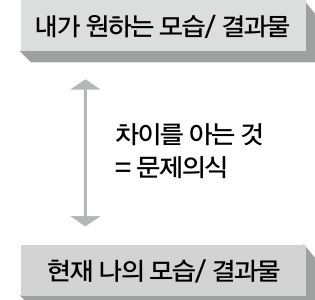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기사님의 머리 위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가녀린 소녀가 기도하는 장식품을 가끔 보게 된다. 운전사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직업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에 ‘무사히’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

직장생활 역시 비슷하다. 매일매일의 출·퇴근길, 작업 현장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은 매일 맞이하는 ‘도전’이다. 출근하면서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작업할 때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해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오늘 무사히 출근했다면 적어도 당신은 ‘무사한 출근길’이라는 도전에 성공한 셈이다.

하루를 무사히 시작했다면, 즉 ‘무사한 출근길’이라는 도전에 성공했다면 이제 다른 도전을 해볼 차례다. 새로운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작은 성공 체험은 큰 성공으로 이어지니, 당신은 두 번째 도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도전 : 문제의식 가지기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결과물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기에 느껴지는 감정이다. 이를 문제의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두 번째 도전이다.  
만약 ‘내 삶은 문제없어’, ‘내 모습과 내 작업의  
결과물은 문제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거나,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

문제의를 가지는 것 자체도 어려운 도전이다. 현재 결과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매일  
인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도전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 도전에도 당신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이제 마지막 도전만 남았다.

### 세 번째 도전 : 목표 설정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보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지금 상황은 이러한데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자 세 번째 도전이다. 표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하다. 목표를  
설정 후 실행 계획 및 점검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목표 설정을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자율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과 기대가 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 도전에 앞서 미리 생각해볼 3가지

### 1.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이 사실은 실패의 결과라는 것. 포스트잇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원래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접착력이 약해서 실패로 분류되었던  
상품이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포스트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2000번 넘게 실험에  
실패했다. 에디슨은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패를  
경험의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자,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자. 무사한 출근까지는 성공했으나 문제점 발견이나  
목표 설정을 못 했다면? 실망할 필요 없다. 그 실패를 소중한 경험으로 활용해서 ‘오늘  
이런 행동을 했더니 아이디어 · 작업 결과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실패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중한 경험으로 쌓을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2.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보자

‘천 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속담은 우리의 도전에도 적용된다. 천 리 길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때 한 번에 천 리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무사한 출근길’이라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무사히 정시 출근이라는 도전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 도전 과제인 문제 발견과 목표 설정 역시 자연스럽게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중 책상 · 작업 공간이 잘 정돈된 사람은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책상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이 무슨 상관일까? 책상 · 작업  
공간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그 다음 이어지는 수많은 업무 과제들을  
연결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작은 성공이 계속 이어져 결국엔 큰  
성공으로 연결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을 터.

마음속에 원대한 목표를 세웠거나, 회사 발전에 기여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그렇다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부터 점차  
성공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제안하고 실천하면서 점차 완성되기 때문이다.

### 3. 부담감은 당연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장군이 그에게 다가가  
두렵냐고 물었고, 그 병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장군은 그 병사를 다그치지 않고  
“나도 두렵다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는 가장 용기 있게 전쟁에 임했다고  
한다.

실패는 분명히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소중한 자산임은 분명하다. 실패를 피하고  
싶다는 것은 이왕이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기대감이 그 밑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나쁜만 아니라 주위 동료, 직장 상급자, 경영진 모두가 갖고 있다.

부담감을 많이 느낄수록 좋은 현상이다. 그 부담감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성공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보다 큰 성취감을 얻을 것이다. 필자 역시 칼럼  
완성이라는 도전에 성공했기에 성취감을 마구 느끼고 있다. <sup>19)</sup>







## 한눈에 들어온 서울 구름 위 새로운 세상에 서다

매일 밟고 사는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은 색다른 느낌을 안겨준다. 서울살이에 적응해가고 있는 허진 OE영업기획팀장 가족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 새로운 추억 만들기

500m 상공,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허진 팀장과 함께 아내 송경희 씨, 첫째 재운이, 둘째 아연이가 밝은 얼굴로 취재팀 앞에 등장했다. 허 팀장은 양산 본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OE영업기획팀으로 발령받아 지난해 9월부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 그의 가족이 모두 서울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서울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있다는 허 팀장은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아직 가본 적 없다며 설렘이었다.

117층까지 1분 만에 닿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정면으로 전망대 바깥 풍경이 펼쳐졌다. 와~ 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먹먹해진 귀를 뚫으려 침을 삼키던 네 가족도 눈을 반짝이며 곧장 창가로 다가섰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약간의 안개가 끼어 있긴 했지만 한강과 강 남북을 잇는 다리들, 지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조그만 아파트와 자동차들은 선명히 보였다.

전망대를 누비던 재운이가 허 팀장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체격의 아들이 쑥스러워하지 않고 살갑게 구는 모습을 보니 격의 없는 다정한 부자임을 알 수 있었다.







##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

117층에서 122층까지 이뤄진 전망대를 한 층 올라가자 유리 바닥으로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스카이 데크가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 바닥 전망대라는 이곳 위에 올라서자 깨질 유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아찔해졌다. 단체 관람 온 어린이들은 아랑곳 않고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반면, 어른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면서도 인증 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허 팀장 가족 또한 발아래 펼쳐진 복잡한 서울 시내를 보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다. 서울로 이사한 후 홍대, 인사동,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랜드 등 다양한 곳을 들렀지만 전망대는 처음이라 서울이 새롭게 느껴지는 듯했다. 재윤이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게 예뻐요”라고 말하자 엄마 경희 씨가 “서울이 생각보다 더 크고 복잡한 걸 또 한 번 느끼네” 하고 답했다. 허 팀장 가족이 거주하던 부산의 전망대에서 바다를 보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고도 486m의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로 향했다.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자마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결 선명하게 보여 눈을 땔 수 없었다. 허 팀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아연이도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재밌고 신기해요”라며 미소를 보였다. 가족은 손끝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저기가 남산이고 저 다리가 올림픽대교인가봐”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아빠 진짜 대단해요”

이전까지는 짧은 여행으로만 머물렀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허 팀장 가족.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이사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걱정한 것도 잠시,

친화력 좋게 친구들을 사귀고 각자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을 지켜보며 허 팀장 부부는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 “재윤이, 아연이가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재윤이는 중학생인데 도래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에게

살가워요. 오늘도

스스럼없이 애정

표현하는 것 보셨죠.



아빠로서 흐뭇합니다.”

서울에 살게 된 뒤로 어떤 곳을 가봤는지, 어디가 인상적이었는지 물었더니 재윤이와 아연이의 답이 같았다. 박물관 관람을 좋아하는 재윤이와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아연이. 경희 씨는 가족 여행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며 웃었다. 그럼에도 평소 다양한 곳에 데려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아이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가 보다. 재윤이가 “아빠는 진짜 대단해요.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자고 하시거든요”라고 덧붙였다. 허 팀장 부부가 아들의 말을 듣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끝으로 허 팀장과 경희 씨가 회사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헬로우 벅센〉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네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sup>10)</sup>



창녕공장 낚시 동호회 4인

# 물고기 낚고 세월도 낚는 우리가 바로 강태공

창녕공장의 낚시 동호회에는 64명이 소속돼 있다. 그중 동호회 총무인 정인호 생산관리팀 생산관제 조장을 비롯해 최웅찬 생산기술팀 U/F파트 직장, 차영민 생산팀 성형파트 사원, 박노태 생산관리팀 생산관제 사원이 마산 원전방파제에 모였다. 낚시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가 아니었던 터라 수확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낚시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명호



**에디터** 낚시하기 좋은 장소와 시기는 아니지만 모처럼 바람 쐬러 나오니 기분이 좋네요. 낚시 동호회는 언제 생겼나요?

**정인호** 낚시 동호회는 2012년 창녕공장이 생기면서 함께 만들어졌어요. 동호회 창설 때는 회원이 20명 정도였는데 점차 늘었고요, 현재 64명이 가입돼 있고, 활동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취미 겸 친목 도모로 즐겁게 임하고 있지요. 저는 동호회에서 3년째 총무를 맡고 있어요. 낚시는 아직 배워가면서 즐기는 수준이지만요, 처음엔 미끼 끼울 줄도 몰랐는데 한두 마리 잡히니까 재밌더라고요.

**박노태** 차영민 사원과 저는 2012년에 입사와 동시에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조원들이 낚시하러 간다고 해서 구경 삼아 따라갔다가 낚시의 재미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차영민** 조원들은 생활 낚시를 주로 하고 저희 둘은 갯바위나 선상 낚시도 좋아해서 시간 맞으면 둘이 낚시 다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옷도 장만했어요. 낚시 조끼에 'TEAM NEXEN'이라고 수놓은 것 보셨죠?

**최웅찬** 저는 가입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정인호 총무와 저는 양산공장에서 근무하다 창녕으로 발령받아 왔고요. 동호회 전 인원이 한 번에 출조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무 조에 따라 활성화시키고 있지요. 세 명 이상 낚시 갈 때는 교통비 제공 같은 지원금 제도도 있어요. 창녕에는 바다가 없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니까요.





**에디터** 오늘 모인 마산 원전방파제에도 자주 오시나요? 평소 동호회에서는 어떤 곳에서 낚시를 즐기세요?

**정인호** 회사에서 한 시간 정도면 도착하니까 가까워서 퇴근하고 가끔 오는 곳이에요. 큰 물고기가 잡히진 않지만 가끔 갈치나 문어도 있고, 고등어철이면 손맛도 볼 수 있죠. 해상 펜션이 있어서 가족이랑 놀러 와도 좋아요.

**최웅찬** 어떤 어종 낚는 것을 좋아하는지는 낚시꾼마다 취향이 달라요. 어종에 따라 목적지와 시기도 다르고요. 6월부터 낚시를 시작하는 편인데 창녕에서는 주로 마산이나 남해, 사천, 포항으로 가죠. 가끔 인원이 모이면 배를 빌려서 조금 멀리 나가기도 하고요. 동호회에서는 친목 다지기도 중요하니까 계절마다 회식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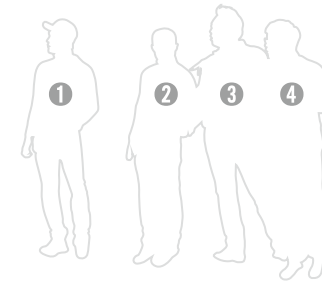
**에디터** 낚시의 매력이 뭐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걸까요?

**최웅찬** 배를 타셨던 부친 덕분에 처음 민물에서 송어 낚시를 해봤어요. 그 후로 낚시대 드리우고 기다리는 것의 재미를 알게 됐고요. 바다에서 바로 잡아 올린 물고기 회 떠서 먹는 것도 낚시의 큰 즐거움이지요. 제가 먹기보다 잡은 걸 주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더 좋아하지만요.

**박노태** 입사하고 얼마쯤 후에 포항으로 고등어 잡으러 다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여섯 명이 4시간 동안 120마리를 잡은 거예요.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 간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후 감성돔, 참돔처럼 더 잡기 어려운 어종 낚시에 흥미가 생겼어요. 잡으면 좋고 못 잡아도 바람 쐬고 오는 게 좋아서 자꾸 가게 돼요.

**차영민** 저도 같이 갔는데 고등어는 떼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라 가능한 거였죠. 일렬로 서서 낚실탄을 던지면 순서대로 잡아 올릴 수 있어요. 낚시는 성취감이 커서 재밌어요. 낚시하는 동안은 회사 일도 다 잊고 낚실탄 끝의 찌에만 집중하게 돼요.

**정인호** 바닷바람 맞으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얻는 거죠.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어느 동호회 활동을 하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와 동료들에게 애착이나 유대감이 생기니까 업무할 때도 에너지를 얻게 돼요.



① 박노태 사원 ② 차영민 사원  
③ 최웅찬 직장 ④ 정인호 직장

**에디터** 낚시아말로 자연에 맞서 도전하는 일 아닐까요. 앞으로도 즐겁게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각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최웅찬** 5자 감성돔을 잡아보고 싶어요. 5자는 50cm 넘는 크기를 말하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죠. 갯바위 같은 곳을 찾아가서 때를 기다려야 해요. 많은 낚시꾼들이 낚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정인호** 장비도 더 많이 갖추고 싶고, 고기 많이 잡기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조를 나가는 시기라서 괜찮은 장소 고르고 회원 잘 챙기는 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낚시 다녀야죠. 동호회가 더 번창하면 좋겠고요. 회원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서 동호회 운영진에게 보내주세요! 예쁘게 꾸며서 공유할게요.

**차영민** 일본에서 낚시를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가까운 대마도에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벵에돔이나 그밖의 어종이 다양하다고 해요. 지역마다 미끼도 다르긴 한데, 지금 갖고 있는 장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낚시 방송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하하.

**박노태** 물고기를 낚을 줄은 아는데 회 뜨는 법은 아직 몰라요. 앞으로도 낚시를 자주 다닐 텐데 회 뜨는 법과 물고기 손질 방법을 배우는 데 도전할 겁니다. 낚시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좋으니 창녕공장 낚시 동호회에서 함께해요! 🐟





야구 경기 보며 화합의 장을 만들다  
**고척 스카이드  
100배 즐기기**

넥센타이어가 마련한 특별한 복지 행사 기회를 쟁취한  
서울사무소 14인이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 일과를  
끝낸 이들이 기대하며 찾은 곳은 열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  
야구장! 이 자리에서만큼은 팀과 직급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경기를 즐겼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목청껏 응원가를 불렀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안타까운 실점이 생기면 일제히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사우들 또한 즐겁게 웃고 떠들며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야구 경기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은 “첫 경기 관람을 근사한 스카이박스에서 하게 돼 즐겁고요. 팀과 직급에 관계없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늘 같은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컴팀 김남희 대리 또한 훈훈한 자리에 함께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회사 근처에서 하는 회식도 좋지만, 경기 관람처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작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녁이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된 다른 사우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혁신팀 측은 “추후에도 기회를 만들어 주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일하기 좋은 넥센타이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㉞

## 우리를 위한, 우리의 히어로즈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은 넥센 히어로즈의 홈 경기장으로, 이곳에는 2개의 넥센타이어 전용 스카이박스가 마련돼 있다. 넥센인들을 위해 스카이박스를 개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갔다.

이번 야구 경기 관람은 넥센인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넥센타이어 전용 스카이박스에서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하며 직원 간 단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임직원 개별 지원 및 추첨 후 개별 공지하는 방식으로 전략기획팀, CRM팀, OE영업2팀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14인이 선발됐다.

5월 24일,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가 고척돔에서 경기를 펼치는 날이었다.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제공되는 의전 서비스를 받으며 넥센타이어 스카이박스에 도착하자 경기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보이는 깔끔한 구조에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스카이박스 안에는 넥센타이어와 넥센 히어로즈의 주요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이 벽면에 진열돼 있고,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사인볼과 운동복 등이 전시돼 있었다.

흥이 넘치는 응원 소리로 요란하고 치킨 냄새 가득한 관중석도 나름대로의 유쾌함이 있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일행끼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한 번쯤 누려볼 만한 즐거움이다. 스카이박스에는 프리미엄 케이터링이 제공되므로 색다르고 여유로운 기분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구장 가득한 응원 열기

이날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우 14인은 넥센 히어로즈의 승리를 염원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 경기를 즐겁게 관람하던 중 스카이박스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다. 넥센 히어로즈의 마스코트인 턱돌이와 동글이, 뚝뚝이가 등장한 것. 선물로 줄 과자 추첨권을 들고 나타난 마스코트들은 사우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은 사우들 얼굴에는 즐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일이라 돔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경기 내내 열기가 뜨거웠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거침없고 패기 있게!  
도전 정신은  
넥센타이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국내서 가장 특별한 모터스포츠

## 넥센타이어의 쾌속 질주

참가 선수,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터스포츠 축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올해를,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으로 시원하게 즐겨보자.

글/사진 마케팅팀

### 국내 최대, 최장수 레이싱 대회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모터스포츠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회사로 넥센타이어를 꼽을 수 있다. 넥센타이어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NEXEN TIRE SPEED RACING)'은 12년을 이어온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다. 2006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 RV 및 SUV 차종을 대상으로 한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2년 승용부문을 정식으로 신설했다. 현재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으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아마추어 대회로 발돋움했다. 넥센타이어는 모터스포츠의 불모지라는 국내 현실에서 12년간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참가 선수들과 대회 운영진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을 만들어 국내 모터스포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 대회 참가 선수 및 클래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에는 10개 클래스, 매 라운드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시즌에는 57개 팀, 376명의 선수가 스피드레이싱에 참여하여 대회를 펼쳤으며, 올해도 많은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를 빛내고 있다. 클래스 구성은 승용부문 7개 클래스, RV부문 3개 클래스로 구성되며, 경기 운영은 스프린트와 타임 트라이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프린트는 정해진 바퀴 수를 완주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드라이버가 우승하는 경기로, 보통 F1 경기가 스프린트 방식이다. 타임 트라이얼은 등수의 개념이 아닌 선수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가리는 경기 방식이다. 2번의 기회를 부여해 그중 최고 기록 기준으로 우승 순위를 가린다.

올해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아 스포티지 차량으로만 경기를 펼치는 국내 유일 RV 원메이크 레이스인 QL-원메이커 클래스와 규정 제한을 최소화한 슈퍼랩 클래스가 신설돼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차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클래스마다 마력과 무게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슈퍼랩 클래스는 마력 무제한에 대부분 규정이 자유다. 슈퍼랩 클래스를 통해 차량과 타이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운영 클래스

구분	클래스 명	주요 기술 규정 (마력)	경기 방식
승용부문	GT-300	390마력 이하	스프린트
	BK-원메이커	330마력 이하	스프린트
	GT-200	220마력 이하	스프린트
	GT-100	150마력 이하	스프린트
	SUPER LAP	마력 무제한	타임 트라이얼
	TT-200	200마력 이하	타임 트라이얼
RV부문	TT-100	140마력 이하	타임 트라이얼
	R-300	240마력 이하	스프린트
	QL-원메이커	순정마력	스프린트
	RV-TT	230마력 이하	타임 트라이얼

##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만의 차별성

다른 대회와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의 차별점이자 장점은 프로암 대회로서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위 클래스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들의 대회 입문 장벽을 낮춰 레이싱 참여 기회를 높이고, 선수 개인 발전을 통해 상위 클래스까지 대회 안에서 단계별 성장과 다양한 클래스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라운드마다 멀리서 찾아오는 가족 단위 팬들이 많다는 것은 대회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국 20여 개 자동차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관람객들의 참여로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축제형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타 대회의

경우 대회 운영 및 드라이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축제형 대회라는 콘셉트에 맞춰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 푸드트럭 등 다양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모터스포츠 팬들을 위해 매 라운드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대회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SBS 스포츠를 통해 녹화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 대회장 내 행사 이벤트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대회 현장에서는 경기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볼거리가 펼쳐진다. 레이싱 대회에 걸맞게 각 팀 또는 참여 튜닝 업체들이 선보는 제품과 튜닝 차량이 전시되어 있으며,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또한 반응이 뜨겁다.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에는 카트 체험, 세발자전거 레이스, 정비 시간 챌린지, 그리드 워크 등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 에어바운스, 여름철에는 물놀이 풀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이 레이싱카에 동승해 서킷을 달려보는 ‘택시 타임’과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서킷을 달리는 ‘서킷 체험 주행’은 관람객뿐만 아니라 자동차 동호회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또한 관람객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이며, 키즈존과 함께 관람객 휴게실을 설치하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sup>19)</sup>

##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대회 일정

구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일정	4월 22 ~ 23일	5월 27 ~ 28일	6월 24 ~ 25일	7월 22 ~ 23일	9월 9 ~ 10일	10월 21 ~ 22일
장소	인제 스피디움	영암 KIC	영암 KIC	인제 스피디움	영암 KIC	영암 KIC



# 베트남을 여행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15

여행자는 종종 일상을 벗어나 생각을 비우고 올 수 있음을 감사한다. 하지만 돌아온 뒤 그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을 담아왔음을 발견한다. 베트남은 참으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라였다. 그중 1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글 김수진

*Vietnam Travel*





#### HANOI

수도, 정치의 중심, 천년의 역사, 호수의 도시

#### HUE & DA NANG

세계문화유산, 베트남 옛 왕조의 찬란한 문화, 관광 명소

#### DA LAT

휴양 도시, 비치, 바닷가재, 섬, 해양 스포츠

#### HO CHI MINH

옛 이름 사이공(Saigon), 경제의 중심, 마천루, 나이트 라이프, 국제적 &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 Geography

이탈리아가 장화고 우리나라가 호랑이라면, 베트남은 꽃이 핀 줄기처럼 생겼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을 차지하고 위아래로 길쭉하게 뻗은 땅. 북쪽은 중국과 만나고, 서쪽은 라오스와 국경이 이어지며, 남서쪽은 캄보디아와 맞닿아 있다. 나라가 길쭉하다 보니(면적은 남한의 약 3.3배에 이른다) 같은 열대 지방이라도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가 꽤 난다. 거의 온대 기후인 북부 하노이는 사계절이 있고 습도가 높은 반면, 전형적인 열대 몬순 기후인 남쪽 호찌민은 계속 덥고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 골목길

베트남의 도시는 수선스럽다.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신경을 자극하고 매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무데뽀로 각자 제 갈 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오토바이 사이를 뚫고 돌아다니는 것이 은근 즐겁다는 것을 하루가 가기 전에 알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대로에서 벗어나 사람 사는 골목길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여행객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신기하다는 듯이 반갑게 눈을 마주한다. 관광지에서 여행객에게 1달러라도 더 뜯어내려는 사람들의 악착같은 모습만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골목으로 들어갈 것



### 베트남의 그림

요즘 베트남 그림이 꽤 인기가 높다. 상당한 컬렉터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아티스트도 많다. 전문가들은 아직 그리 비싸지 않아 앞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기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는 터치와 원색적이면서도 뉘앙스가 있는 색채 앞에 서면 가지고 싶어진다. 누구 작품인지는 몰라도 내 방에, 거실에 걸면 예뻐 것 같은 베트남 화가의 그림을 당신도 하나쯤 발견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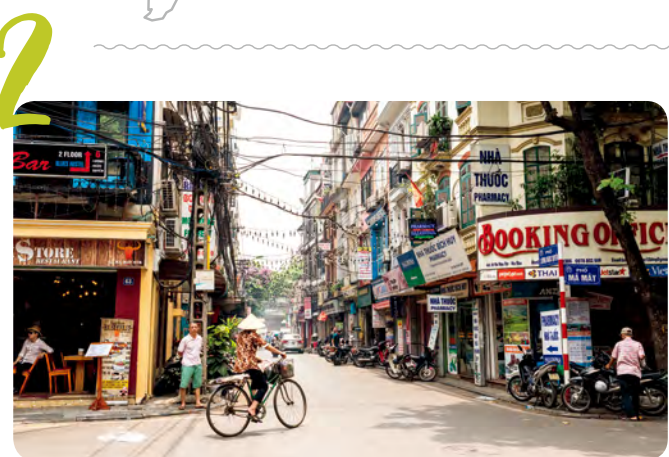
### 오토바이 & 택시 & 시클로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스크로 코를 가린 채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승려들도 가사 위에 헬멧을 쓰고 있다. 전철이 없고 버스를 타기도 쉽지 않아 개별 여행자들은 시내에서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 4인승의 경우 기본요금은 1만 1000동(약 550원). 관광지에서는 시클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노이 구시가지에서 탄다면 요금은 거리에 따라 1만 5000~5만 동 정도다.



### 베트남 커피

얼마 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인기 기념품인 '베트남 커피와 전용 필터 세트'를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현지에서도 맛있었는데, 직접 해 먹어봐도 과연 좋라며 대만족이다. 커피 생산량 세계 2위인 베트남에서는 눈 닿는 거의 모든 곳에서 커피와 커피 관련 용품을 판매한다. 19세기 말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 커피를 가져왔을 때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려워 연유를 넣기 시작했다고. 원래는 치커리를 조금 넣어야 하지만 커피와 연유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 G7의 인스턴트도 인기.



### 하노이 구 시가지

넓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이고 덜 경제적이지만 이대로 개발은 영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 하노이의 구시가지가 그랬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바스라진 곳을 겹겹이 대충 손본 건물 1층은 대부분 가게지만 2층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곳에선 상업주의 속에 인간적인 냄새가 훅 풍기는 것을 느낀다. 수공예품과 먹을거리, 그리고 불법 복제품 가방과 운동화 가게가 골목골목 꽤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수공예품은 자수나 가면, 조각품, 옷 같은 게 많다. 다 둘러보는 데 다섯 시간은 걸릴 이 구역을 편하게 걸을기 위해 시클로를 이용하는 서양 여행객들을 볼 수 있고, 명성 높은 베트남의 전통 공연인 수상인형극장도 볼 수 있다.





### For Friends : 하노이

많은 도시 중에 친구와의 여행으로 하노이를 찍은 것은 베트남 속 프랑스 문화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프랑스풍 건물들을 둘러보는 재미와, 진하고 달콤한 베트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길거리 카페도 만날 수 있다. 하노이 중심부의 호안끼엠(Ho Hoan Kiem) 호수는 하노이 여행의 시작점. 저렴하지만 깨끗한 숙소도 호수 주변에 밀집해 있으며, 밤이 되면 야시장이 열려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이외에 36개의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36거리, 구시가지의 항박(Hang Bac)에서 타 히엔(Ta Hien) 거리에 형성된 맥주거리, 동쑤언 시장, 호찌민 묘, 호찌민 박물관 등 베트남의 문화·역사는 물론 쇼핑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현지 여행사를 통해 하롱베이, 닌빈(Ninh Binh), 사파(Sapa) 투어도 예약 가능하다.

### 도시별 맥주 비교

베트남에서는 지역별로 로컬 비어를 맛보는 재미를 즐겨라. 해외에서도 잘나가는 바바바(333) 맥주 외에도 하노이 비어, 후에 비어, 사이공 비어, 비에르 라루(Biere Larue, 호이안 지역 맥주), 그리고 생맥주인 비아 하이(Bia Hoi) 모두 약간씩 맛이 다르다. 맥주 가격 역시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생맥주는 5000동(한화 약 250원), 병맥주는 2만~2만 5000동(한화 약 1000~1250원)이다.



### For Family & Couple : 다낭 & 호이안

가족, 연인과 함께라면 베트남 중부의 다낭과 호이안을 추천한다. 다낭은 현재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도시. 특히 4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아름다우면서도 조용한 다낭 해변 풍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거나,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바나힐 국립공원, '마블 마운틴'으로 불리는 대리석 산과 동굴 관광도 즐겁다.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호이안도 꼭 방문해볼 것.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2층의 작고 오래된 집이 강가를 따라 이어진다. 등불, 조각품, 그림을 구경하거나 기념품을 고르면서 슬렁슬렁 걷는 것도 좋고, 마을 옆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 위에 배 띄워서 풍류를 즐기는 것도 좋다.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내원교에서 야시장까지 이어지는 다리 어귀에서 등불을 사 강에 띄우며 소원을 빌어보기를. 호이안의 밤 풍경을 더욱 낭만적으로 만든다.



### 베트남 돈

베트남 화폐는 예쁘다. 투명한 핑크, 파랑, 녹색, 노랑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들었고, 크기도 작다. 얼마짜리 지폐든 간에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전 국민의 삼촌 '호찌민'. 1만 동 지폐 뒷면에는 우리나라 여행객에게도 인기 있는 세계적인 명소 하롱베이, 10만 동 화폐 뒷면에는 호찌민의 집이 그려진 것 외에는 방적 공장, 강통 공장, 발전소 따위를 넣은 것이 베트남답다.



### 쌀국수보다 맛있는 음식들

굽고 찢고 튀기고 날것으로 먹고 탕으로 끓이고 찜 싸 먹고, 베트남 미식은 조리 방법에 따라 식감과 풍미의 차이가 유난히 확연하다. 고수나 민트 잎이 내는 독특한 향의 영향도 있지만 익숙한 식재료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맛으로 완성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는 '러우(Lou)'라고 하는 탕(hot pot)을 시키면 된다. 지역이나 가게마다 조금씩 맛이 다른데, 해산물이나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 맛을 낸 국물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 한소끔 끓여낸 것으로, 진하면서 뜨끈한 국물을 한입 떠 먹으면 입에 착착 붙는다. 한국에서도 꽤 대중화된 쌀국수 '포(Pho)'는 전국 어디에나 있긴 하지만 사실 북쪽 지방 음식이고, 남부는 생채소를 즐겨 먹는단다. 어쨌든 베트남 미식은 즐거운 도전이다.

### 베트남에서 꼭 해봐야 할 일

- ▶ 하롱베이에 배 띄워놓고 그 위에서 자기
- ▶ 베트남 전통 의상 맞춰 입기
- ▶ 사이공의 옛 프랑스 구역에서 시클로 타고 돌아보기
- ▶ 노점에서 닭고기 쌀국수(포 가, Pho ga) 먹어보기
- ▶ 호이안에서 대보름 축제에 참여하기
- ▶ 후에의 흥 강을 따라 배 타고 왕릉 찾아가기



### 권장 사항

가난한 아이들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원 달러'를 부탁한다 하더라도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조그맣고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데 낫다. 당신에게 그들을 돕고 싶다는 진심이 있다면 정식 기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베트남 여행 정보

**시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리다. **기후** 열대 몬순 기후 **가는 법** 인천, 부산에서 호찌민과 하노이로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4시간 30분에서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15일간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여행할 계획이라면 국제관광회사 허가를 얻은 관광회사를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에 받아 간다. **언어** 베트남어 **통화** 베트남 화폐 단위는 동(Dong). 1만 동이라야 우리 돈 500원 정도다. 여행지에서는 종종 달러가 통용되며, 기념품이나 과일 같은 것을 살 때는 달러로 흥정하고 지불할 수 있다. ㉞



# ☀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건강 관리법



여름철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평소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실외 산업현장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에게는 건강관리도 곧 능력!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조심해야 할 질병과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지혜

## 오르락내리락 온도 적응법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면 높은 기온에 익숙지 않은 우리 몸에 비상이 걸린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다고 냉방 온도를 낮추려 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며 긴소매 옷을 찾는다. 몸이 차가워도 문제, 뜨거워도 문제인 여름철 온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 일사병

기상청은 6~9월 최고 기온 33℃ 이상, 최고열 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 폭염경보는 최고 기온 35℃ 이상, 최고열 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해당된다.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열에 상당 시간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수분 및 염분 섭취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하며 두통, 위약감,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일사병이 의심되면 시원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면서 시원한 음료,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셔야 한다.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자는 약간의 소금 섭취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맥주 등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편이 좋다.

### 🔥 열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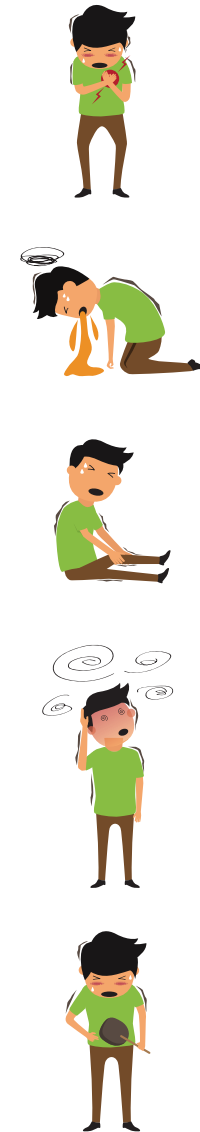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운동 등을 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통 체온이 40℃가 넘을 때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인다. 때에 따라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해 응급질환 중 가장 심각하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땐 차가운 물로 몸을 닦거나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등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단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함부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도로 물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럴 땐 가급적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1339),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냉방병

더위와 습기를 없애고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곤 하는데, 이때 냉방이 된 실내와 더운 실외 온도의 차이가 심해진다. 냉방병은 몸이 여름철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원인 모를 두통, 만성 피로감, 작업 능률 저하, 전신 근육통,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고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온도는 26℃, 습도는







50% 내외가 적당하다. 수면 중에는 에어컨 타이머를 가능한 한 1시간 안쪽으로 맞추고, 에어컨의 풍향은 천장을 향하도록 해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건 필수다. 컨디션에 따라 면역력이 약해지면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럴 땐 겉옷이나 담요를 활용해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건강한 여름, 이것만은 꼭!

### 1. 수분과 수면을 잡아라

여름에는 적어도 2~3컵 정도의 물을 수시로 마셔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현상을 겪게 된다. 이때 얼음물을 마시기보다 배탈 위험을 줄여줄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 좋다.

여름은 불면증의 계절이기도 하다. 밤이 돼도 잠처럼 식지 않는 기온, 그리고 하루 종일 높은 습도는 불쾌 지수를 높여 수면을 방해한다.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해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잠자기 전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커튼을 치는 정도의 수면 환경 개선만으로도 불면 증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잠이 너무 안 올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알코올엔 중추신경 억제 기능이 있어 어느 정도 수면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수면을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할 때 알코올로 늘릴 수 있는 수면은 1·2 단계의 '얕은 잠'이다. 3·4단계의 '깊은 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수면을 목적으로 알코올을 계속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 등 알코올 자체가 주는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는 건 물론, 술 없인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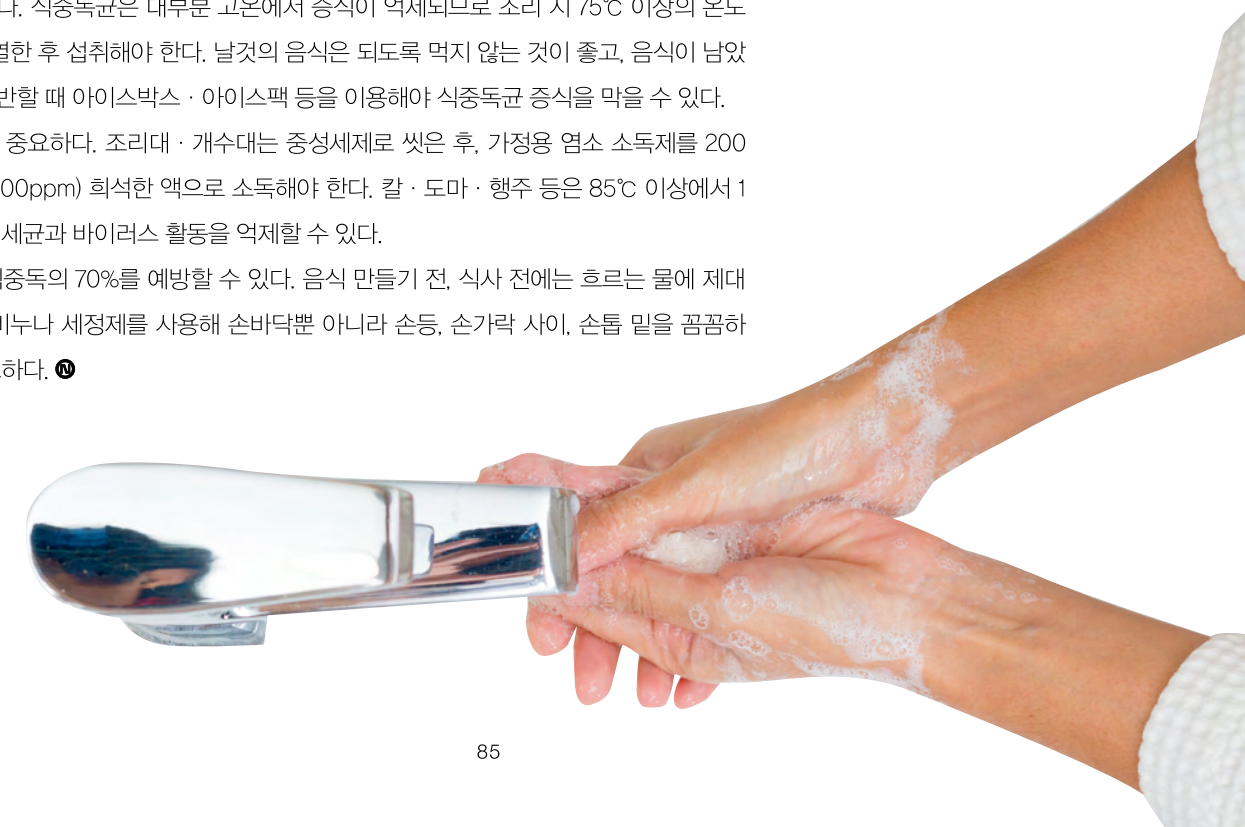
### 2. 비타민과 단백질을 보충하라

무더위에 체력 소모가 심하면 피로감은 몇 배나 더해지기에 열량 보충을 충분히 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두유, 두부, 콩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이 있다. 특히 입맛까지 살리는 콩국수는 여름철 음식으로 제격이다. 보신탕이나 삼계탕 등 보양식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단백질 가운데서도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것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이며, 에너지 소비량은 15~20%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땀은 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땀을 통해 무기질과 비타민도 함께 배출된다. 제철 과일과 채소는 섬유소가 풍부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이 소모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해선 과일이 제격이다. 수박은 약 90%가 수분이지만 비타민 B<sub>1</sub>·B<sub>2</sub>·C, 칼륨, 인,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포도당의 원천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참외 역시 여름철 탈진 예방에 안성맞춤.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고 칼륨이 많아 수박과 같은 이뇨 작용을 한다.

### 3. 음식에 민감하라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해 세균이 번식하고 활동하기 쉽다. 특히 음식물에 세균이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식중독균은 대부분 고온에서 증식이 억제되므로 조리 시 75℃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날것의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음식이 남았다면 음식물을 운반할 때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이용해야 식중독균 증식을 막을 수 있다. 주방 기구 관리도 중요하다. 조리대·개수대는 중성세제로 씻은 후,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200배(염소 농도 약 200ppm) 희석한 액으로 소독해야 한다. 칼·도마·행주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음식 만들기 전,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제대로 닦아야 한다.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손바닥뿐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sup>19)</sup>





# 주 스 한 잔 으 로 총 전 하 는 여름 에너지

무더운 여름, 지친 우리 몸은 피로감이 더해지고  
면역력은 낮아져 질병에 걸리기 쉽다.  
비타민 섭취만 잘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는 그야말로 비타민의 집합체다.

자료협조 길벗 <약 대신 주스>



## 프리바이오틱스 주스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서 이로운 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물질로, 장내 세균총을 보존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또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엽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변비 해소에도 좋다. 바나나는 비타민 B<sub>6</sub> 함량이 높는데, 비타민 B<sub>6</sub>는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대식세포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 재료(1인 기준)

아스파라거스 70g



바나나 1개



물 ⅔컵(150ml)



꿀 2작은술(1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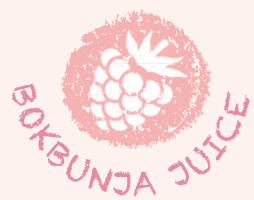


### 만드는 방법

- 1 아스파라거스는 질긴 부분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식힌다.
- 2 믹서에 1과 바나나, 물, 꿀을 넣고 간다.
- 3 기호에 따라 꿀을 좀 더 첨가해도 된다.







## 복분자 강장주스

복분자는 몸 내부에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고, 파와 생강은 외부에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도와준다. 몸 안팎으로 면역력을 지켜주는 주스인 셈이다. 파와 생강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면 소금 대신 꿀을 첨가해도 좋다.

### 재료(1인 기준)

복분자 5g(1작은술)

+



물 1컵(200ml)

+



파 뿌리 1개

+



생강 슬라이스 1조각

+



소금 약간

+



### 만드는 방법

- 1 주전자에 복분자, 물, 파 뿌리, 생강 슬라이스를 넣고 약한 불에서 5분간 끓인다.
- 2 1에 소금을 넣는다(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해도 좋다).



## 수삼 원기주스

우유는 완전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아미노산과 여러 영양분이 풍부하다. 예로부터 큰 병에 걸렸다 나온 후, 체력 보충을 위해 우유를 먹기도 했다. 수삼은 면역력 증강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지만, 간혹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사용한 우유가 성질이 서늘한 편이므로 수삼의 이러한 면을 보완해준다.

### 재료(1인 기준)

수삼 20g

+



우유 ¾컵(150ml)

+



청국장가루 1작은술(5g)

+



매실청 1~2큰술(15~30g)

+



### 만드는 방법

믹서에 수삼, 우유, 청국장가루, 매실청을 넣고 간다.



〈약 대신 주스〉에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101가지 주스 레시피가 담겨 있다. 각 주스에 쓰인 재료의 궁합과 본연의 맛을 잘 연결해 달콤하고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주스 위주로 소개했다.





크고, 맵고, 뜨겁다

## 이유 있는 도전

누구는 바보라며 혀를 찼다. 누구는 돈이 남아도냐고 했다. 한눈에 보아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음식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말이다. 너무 크고, 너무 맵다. 뜨거움에 입천장이 다 까져도 도전한다. 무모한 도전인 듯 보이지만, 모험 정신 강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음식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일 뿐. 푸드 파이터들에게 입소문 난 가게 세 군데를 찾아갔다. 다음은 에디터의 음식 도전기다.

글 김수진 사진 이맹호

멈출 수 없는 맛, 점보라멘

### 라멘81번옥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 송일국 씨가 점보라멘 먹기에 도전해 실패한 후 더 유명해진 라멘81번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일본식 라멘집. 일본에서 20년 넘게 요리사로 일했다는 일본인 사장이 2003년부터 운영하는 욕심 있는 가게다. 그래서 가게 이름도 국제전화 시 일본 국가번호인 '81'에서 따왔다. 라멘집답게 소유라멘, 미소라멘, 시오라멘, 탄탄멘 등 면 종류와 돈가스 등 메뉴 또한 심플하다. 하지만 이 집을 찾은 진짜 이유는 소유라멘 4인분이 한 그릇에 담겨 나오는 점보라멘 때문! 20분 이내에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실패하면 2만 원을 내야 하지만, 도전자는 꾸준히 많은 편. 점보라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한쪽 벽면을 차지한 성공자들의 환한 미소다. 최단 시간 3분 40초, 평균 5분대. 여성 도전자가 많은 것도 신기했다. 2000여 명의 도전자 중 성공은 500명 정도라니, 4명 중 한 명은 성공한다는 계산 하에 점보라멘을 주문했다.

지름이 팔뚝 길이만 한 그릇에 노란 중화면, 차슈와 삶은 달걀, 김과 미역, 파 등이 맛깔스럽게 담겨 나왔다. 스톱워치를 누르고 다급한 마음에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입으로 면을 빨아들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빠른 포기를 결정하자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그제야 아까 우적우적 먹었던 차슈가 3시간 동안 특제 소스로 구웠다는 것도, 매일 자가제면으로 뽑아낸 계란면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직접 끓인 육수에 특수 제조 간장이 어우러져 풍미도 훌륭했다. 이 만하면 아깝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생각된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74
- 운영시간 11:30~22:00
- 메뉴 소유라멘·시오라멘 7000원, 미소라멘 8000원, 탄탄멘 9000원
- 전화 070-8119-6770







## 지옥의 매운맛 우찌노 카레

매운것 좀 먹어봤다는 사람이라면 알 만한 일본 매운 카레 전문점 우찌노(うちの) 카레. 카레로 유명한 일본 기타큐슈 모지항의 정통 일본 카레에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진한 매운맛을 선보인다. 인심 좋게도 밥과 카레는 무료 리필. 매운맛의 세기는 레벨 0의 입문부터 레벨 1 초보, 레벨 2 중수, 레벨 3 고수, 레벨 4 신까지 고를 수 있다. 매일 오후 2~3시에 열리는 ‘우찌노 타임’에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매울 신(辛)이자, 신(神)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최고 매운맛인 ‘신’에 도전해 성공하면 식사비가 무료!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릇에 진하게 밴 매운 향에 기침을 할 정도라니, 슬슬 도전 욕구가 불타올랐다. 도전 메뉴는 수제 돈가스 카레, 레벨 4다. 도전 중 반찬 리필하면 실격. 당연히 물을 마셔도 실격이다. 4단계임을 알리는 검은 깃발이 밥 위에 살포시 꽃혀 나왔다. 카레에 비빈 밥을 입에 넣었다. 청양 고춧가루 입자가 불꽃놀이 하듯 입에서 터졌다. 카레가 배어들까 싶어 돈가스를 얼음 집어들어 한입 베어 물었다. 아 뽕싸, 이미 튀김옷에도 카레 소스가 촉촉했다. 눈도 촉촉, 코도 촉촉, 입도 촉촉. 그렇게 우찌노 타임은 지나갔다. 별경계 달아오른 입과 놀란 위를 진정시키는 데만도 수십 분. 성공자들이 진심으로 대단해 보였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 대림아크로텔 110호  
**운영시간** 11:00~22:00 (15~17시 브레이크 타임)  
**메뉴** 고로케카레 7000원, 돈가스카레 8000원, 새우튀김카레 9000원, 모듬카레 9800원, 우찌노 정식 1인 1만 원  
**전화** 02-2051-0908



## 또 다른 세상의 경험 온情돈가스

주말, 평일 구분 없이 항상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기본인 온情돈가스. 식당 내부는 다소 허름해 보이지만 천장에 붙은 커다란 메뉴판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뒤집+ㅏ)’ 전장백’이라 호기롭게 적힌 경고 문구, 또 다른 세상으로의 체험을 막기 위해 소화제와 우유를 필수 지참하라는 무시무시한 안내문까지. 만만치 않은 곳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7년 전부터 도전 음식을 개시한 송중원 사장은 도전을 통해 우리나라 상위 0.1% 성공자를 찾아보고자 메뉴 개발을 했다고 한다. “도전은 어지간하면 자제해주세요. 버리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도전자들에게는 허공에 흩뿌려질 이야기다. 자랑스럽게 ‘V’를 그리고 있는 도전 성공자들의 사진 옆에 내 사진이 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왕돈가스를 주문했다. 도전 시간은 단 20분.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 공짜, 7분이면 1개월 공짜, 10분 만에 먹어도 2번 공짜라니! 물론 실패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하지만 말이다. 거짓말 안 보태고, 피자 패밀리 사이즈만 한 돈가스가 나왔다. 그것도 세 덩이! 여기에 어떻게 담았는지 궁금할 정도인 고봉밥, 아니 아기 머리통만 한 밥이 나왔다. 돈가스는 어찌나 뜨겁고 두꺼운지, 반의 반도 못 먹었는데 도전 시간이 끝났다. 밀려드는 허탈함도 잠시, 서비스로 다진다돈가스가 몇 점 나왔다. 대왕돈가스의 배부름도 잊게 만드는 극강의 매운맛에 할 말을 잃었다. 기절한 손님도 여럿이라는 사장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겠기에. ㉞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60(신림동 546-1)  
**운영시간** 10:30~21:00  
**메뉴** 돈가스 6000원, 매운(눈물속) 돈가스 7500원, 정식 7500원  
**전화** 02-3281-3330





# 결재를 바랍니다

## 될 만한 걸 해서 성공한 영화에 대한 품의서 BEST 3

‘하면 된다’라는 충고, 누구나 한 번쯤 들은 적 있다. 도전을 독려할 때 쓰는 참 편리하고도 책임감 없는 충고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많다. 해도 안 되는 것들 천지다. 그래서 여기에 영화 세 편을 소개한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될 만하게 만들어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다. 조금이나마 참고하여 도전의 양분으로 삼길 바란다. 참고로 모두 실화다.

글 이영환(칼럼니스트)



### 계획대로 된 케이스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도전’이라는 단어로 실제적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기획이 필요하다. 단순하고 실행하기 쉬운 경우 성공 확률은 올라간다. 기발한 발상을 통해 처음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이야기를 BEST 1 영화로 선정했다. 주인공인 대학생 세 명은 ‘돈이 없어 인생이 공상이요, 뺑이 없어 성공할 수 없다’라며 절망감에 젖은 작금의 현실을 영민한 기지로 타개한다. 늘 남아도는 해외 숙박업소의 자투리 방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해당 업소 광고 영상을 제작해주는 기획으로 1년간의 공짜 유럽 여행에 도전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쓰지 않고 인적 재원을 활용한 매출 극대화를 실현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창조경제적 시대이므로.

문서번호	105-2013	보존연한		-		
처리기한	-	결재	담당	과장	부장	이사
기안일자	2013/11/28		'오'			
시행일자	-					
수 신	000	기안구분				
기안자	이호재	협조부서				
제 목	물물교환 공짜 유럽 여행 결재의 건					

표제의 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 \* \* \* \* 아 래 \* \* \* \* \*

#### 1. 배경

- 개&소 유럽 여행 트렌드에 따라 덩달아 여행 니즈 상승
- 물물교환 영업을 통해 공짜 유럽 여행을 하고자 함

#### 2. 목적

- 공짜 유럽 여행 (숙박업소 홍보 영상물 ↔ 숙식 교환)
- 록 밴드 뮤직비디오 연출 및 제작
- 여행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및 개봉

#### 3. 달성 과제

- 1) 숙박업소 회유 및 숙식 구걸
- 동양인 측은지심 활용, 업소 사장님 회유 및 설득(급신 화법 必)

#### 2) 염치없으니즘 장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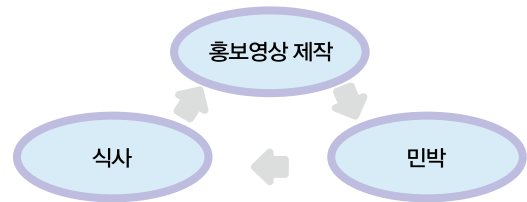
- 글로벌 문화시민 에티켓 일부 미 준수  
(노상 탄산수 머리 감기, 노숙 및 안 씻기, 공공장소 취침 등)

#### 3) 무한긍정 에너지 확보

- 글로벌 인종 차별 및 갑질 횡포에 대한 멘탈 甲 유지

#### 4. 실행 방안

- 1) KEY MESSAGE: “Let’s exchange your bed with my PR video”



#### 2) 세부 일정

일정				
장소	파리	로마	이스탄불	런던

#### 5. 기대 효과

- (영화 개봉 시) ‘절찬리 상영 중’ 타이틀 획득, 취직에 도움될 듯.
- (물물교환 성사 시) 공짜 여행을 통한 다량의 유희 경험 및 학업 스트레스 해소
- (잘되지만 하면) 록 밴드 뮤직비디오 제작, 글로벌 스타 감독 타이틀 획득



개봉 : 2013년  
연출 : 이호재  
러닝타임 : 105분  
출연 : 이호재, 이현학, 하승엽



## 계속 실패해서 된 케이스 맨발의 꿈

동티모르는 21세기 최초의 독립국이다. 산업화되지 않은 미개척지다. 김원광(박희순)은 ‘동티모르 드림’을 안고 이곳에서 축구용품 소매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기회의 땅’이라는 단어가 달콤한 설레발임을 몇 달도 안 가 실감한다. 가난과 공상의 연속일 뿐, 동티모르의 내수 시장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싸 죽이는 내전만 발발할 뿐이다. 연속된 실패에 좌절하던 중, 김원광은 문화가 있어야 시장이 성장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곧바로 축구화 대여 서비스와 동시에 급조한 유소년 축구팀을 창설한다. 간사한 판촉 목적이 무안할 만큼 이 축구팀은 도전을 거듭할수록 놀라운 성적을 낸다. ‘동티모르의 히딩크’인 한국인 김신환 감독의 이야기다.

문서번호	121-2010	보존연한		-		
처리기한	-	결재	담당	과장	부장	이사
기안일자	2010/06/24		'오'			
시행일자	-					
수 신	000	기안구분				
기안자	김태균	협조부서				
제 목	동티모르 스포츠용품 MD 파견의 건					

표제의 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아래\*\*\*\*\*

### 1. 배경

－ 동티모르 산업화 돌입에 따른 스포츠용품점 운영 (블루오션)

### 2. 목적

－ 축구용품 매장 개설

－ 주재원 1명 파견 요청 (前 프로 축구 선수 김신환 감독)

### 3. 달성 과제

1) 당기 순이익 ‘먹고살 수준’ 확보

－ 축구용품 대여 서비스 : 1 DAY 1\$

－ 축구용품 판매 : 국내 생산 단가 대비 2000% 마진 책정

－ 브랜드 차별화 : 나의키, 너의키, 우리의키, 넘작은키 등

2) 3C 분석 현지화

① Comudn’t strategy (코 문은 돈 전략) : 꼬맹이라고 봐주지 않는 NO 알짱 정찰제 → 목표 매출 달성 기여

② Copy Brand (짝퉁 브랜드 전략) : 특허청 상표등록 관련 위법 여부 판단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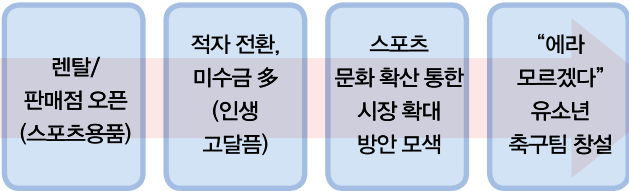
③ Customer Nuntang (눈탱이 전략) : 렌탈 시스템 도입 및 헌물 교환 서비스 도입

→ 매출 유연성 확보 / 판관비 제외 200% 수익 고정

### 4. 실행 방안

1) KEY MESSAGE : ‘돈 대신 꿈을 파는 사나이’

2) Milestone



### 5. 기대 효과

－ 동티모르 내적 자본 부실에 따른 내수 시장 몰락 (판매점 동반 몰락)

－ 왕년에 축구하던 재능 활용해 유소년 축구팀 창설, 감독으로서

재능 발견

－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인간 김신환의 브랜드 가치 상승 기여



개봉 : 2010년

연출 : 김태균

러닝타임 : 121분

출연 : 박희순, 고창석

## 달변으로 된 케이스 호텔르완다

1994년 르완다에 내전이 발생한다. 후투족이 투치족 수만 명을 학살한다. 이때 폴 루세사바기나(키갈리 호텔 지배인)가 1268명의 난민을 호텔에 수용하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한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순발력과 기지는 놀랍다. 기존 정부군 내의 지인에게 뇌물을 쥐 호텔을 안전하게 만들고, 밀 콜린스 본사에 연락해 호텔을 폐쇄하지 말고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래야 후투족의 호텔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지몽구 장군에게 “날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인종학살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만약 도와주면 난민들을 지킨 공을 넘겨주어 전범 혐의를 벗게 해주겠다는 제의까지 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결국 그는 국경을 넘어온 투치족 군대의 보호 아래 난민들을 유엔이 세운 난민 캠프로 옮기는 데 성공한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발휘된 그의 신속한 대처 능력은 위기 관리가 불가피한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된다. 폴 루세사바기나는 호텔 지배인으로 고객을 응대하며 학습한 순발력과 기지가 1268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문서번호	121-2006	보존연한		-		
처리기한	-	결재	담당	과장	부장	이사
기안일자	2006/09/07		'오'			
시행일자	-					
수 신	000	기안구분				
기안자	테리조지	협조부서				
제 목	내전 발발에 따른 CSR 개시의 건					

표제의 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아래\*\*\*\*\*

### 1. 배경

－ 1994년 르완다 학살 사건 발발

－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에 따른 구조 시설 필요성 증가

### 2. 목적

－ 학살 사건 피해자의 대피 시설로 자사 호텔을 활용하고자 함

### 3. 실행 방안

1) KEY MESSAGE : ‘Go inside hotel’

－ 정부군 뇌물 제공을 통한 민간인 학살 방지 (호텔 방어)

－ 밀 콜린스 본사에 연락해 호텔 영업 유지 요청 (폐쇄하면 호텔로 반(대군 진입 가능)

－ 사베나항공 회장(틸렌스) 설득을 통한 선진국 구조 협조 요청

### 4. 기대 효과

－ 1268명에 달하는 민간인 생명 보존

－ 국영 호텔 기업의 가치 상승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개봉 : 2006년

연출 : 테리 조지

러닝타임 : 121분

출연 : 돈 치들, 소피 오코네도, 호아킨 피닉스



## 2017년 여름호 〈헬로우 넥센〉 참여 후기

여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위 아 더 넥센  
설계해석팀 | 권현직 연구원

처음으로 사보 제작에 참여했는데 인터뷰 내내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  
었습니다. 팀원들과 공통의 추억이 생겨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다음에는 팀원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재밌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헬로우 넥센〉에 감사드립니다.



위 아 더 넥센  
설계해석팀 | 최광혁 주임연구원

예전부터 팀 단위로 사보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저희 팀에 기회  
가 왔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팀을 좀 더 알리고 팀원들끼리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든 팀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회식 자리 또는 추후에 회자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주신  
〈헬로우 넥센〉 사보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날이 많이 덥지  
만 다들 건강 챙기시면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대 : 담하다  
(창녕) 생산팀 성형파트 | 차영민

사보 출연에 동호회 식구들이 다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낚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낚시를 하면 할  
수록 어렵다고 느끼지만, 대상어가 주는 그 짜릿한 손맛에 늘 설렘니  
다. 앞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낚시 동호회 파이팅!



대 : 담하다  
(창녕) 생산관리팀 생산관제 | 박노태

동호회 소개를 통해 좋은 곳에서 즐겁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좋아하는 취미에 새로운 목표  
를 갖게 되었으니,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  
다. 〈헬로우 넥센〉과 많은 동호회가 좋은 추억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 데이  
OE영업기획팀 | 허진 팀장

저희 가족은 지난 1월 양산에서 서울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보 촬영은 우리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느라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게 어  
려웠지만 서로 웃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kr

#### 독자 선물 당첨자

이민준 전북 남원시 남문로  
강창규 대전 중구 동서대로  
박동미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이옥경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강주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권국형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서해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정이랑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 Become a Change Agent

## Awaken the Giant within!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실패를 두려워 마라.

도전을 즐겨라.

자유롭게 소통하라.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라.



핵심 과제

※ CA란? : Change Agent, 변화주도자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조직 내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

※ GWP란? : Great Work Place  
신뢰와 자부심 그리고 재미가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일련음

• Vision 전파 • Culture 개선 • GWP 시작 • 혁신 활동

목적 및 배경

- CA 육성 및 운영을 통한 내부로 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 '행복한 우리의 일터, 넥센!' 의 실현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

Mission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열린 조직문화의 구축

핵심활동

- 비전 / 미션 / 핵심 가치 / 경영이념 등 전파 활동
- 회의 / 보고 / 회식 문화 등 전반적인 기업 문화 개선
- GWP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행복한 우리의 일터 만들기
- 사업장 별 혁신활동 전개, 다양한 제안 제도 활성화

선발 기준 및 일정

- 변화 추구 의지 / 적극적인 태도 / 솔선수범 / 긍정적 마인드 / 반듯한 사고 / 소통
- 전사 CA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로 선발하며, 별도 일정 공지 예정